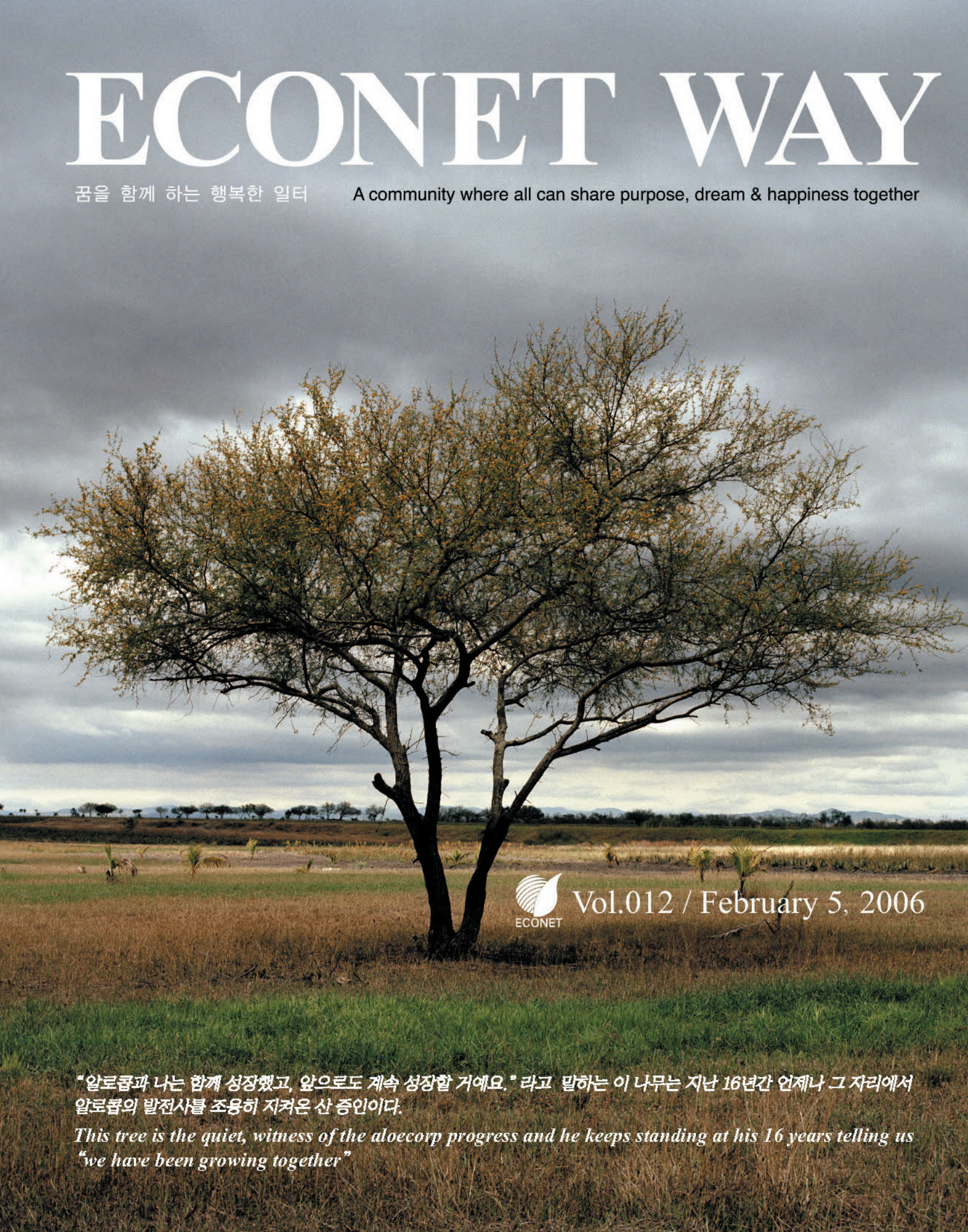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ECONET Vol.012 / February 5, 2006

"알로콥과 나는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나무는 지난 16년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알로콥의 발전사를 조용히 지켜온 산 증인이다.

This tree is the quiet, witness of the aloecorp progress and he keeps standing at his 16 years telling us "we have been growing together"

ECONET WAY Vol.012 / February 5, 2006

발행인 이병훈 / **발행처** ㈜남양 / **편집기획**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 **편집** 오경아 /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 **인쇄** 정광인쇄㈜

Publisher Bill Lee /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 Editor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ECONET Special

02 > **리더십 리포트** 냉해는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06 > **서번트 리더쉽 워크샵 참가기**
08 > **테마캠페인** 서번트 리더십 테마칼럼
13 > **스페셜 이슈** ECONET East의 중장기 인사 전략의 실행
14 > **글로벌 비즈니스** Ageless 성공의 비밀 ; 신제품 개발 위원회

ECONE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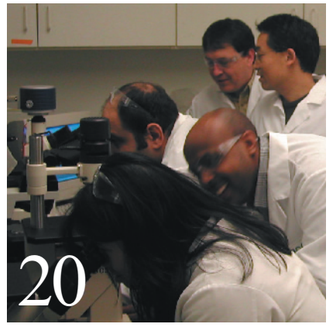
18 > **고고 우리부서** 유니젠 미국 발견 검증부
22 >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젠 한국 차지민 이사
26 > **에코넷 웨스트** 나눔과 베품의 시즌
28 > **칭찬 릴레이** 일곱번째 주인공 ㈜남양알로에 중부영업팀 이규남 과장
30 > **칭찬 릴레이** 다섯번째 주인공 미국 유니젠 '지푸' 박사
34 > 2005년 Employee of the Quarter 오아시스 회계팀 사라월

Culture & Life

36 > **명소소개** 이연호 회장님 옛 추억의 발전소 성수동 '한서 칼국수'
38 > **헬씨라이프** 겨울철 스키
42 > Lacey Holiday Party

Info

4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60 > **사진콘테스트** 2005년 12월호 사진 당첨자 & 2006년 2월호 사진 응모 안내
66 > **2월호 퀴즈 & 2005년 12월호 퀴즈 당첨자 안내**



ECONET WAY

공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Contents

ECONET Special

04 > Leadership Report The Freeze was a blessing not a trial
07 > Report on the Servant Leadership Workshop
10 > Theme Campaign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16 > Global Business The secret behind the big hit of Ageless ;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ECONETIAN

20 > All About Our Team Discovery and Screening Department, Unigen USA
24 > Welcome to My Home Dir. Jimin Cha, Unigen Korea
27 > ECONET West A Season of Giving
29 > A Relay of Praises Seventh Runner Gyunam Lee,
Manager of the Jungbu Sales Team, Namyang Aloe
32 > A Relay of Praises Fifth Runner Ph.D. "Jifu", Unigen USA
35 > 2005 Employee of the Quarter Sarah Wall, Accounting Team, Oasis

Culture & Life

37 > Famous Place A Place Filled with Memories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Hanseo Kalguksu in Seongsu-dong
40 > Healthy Life Skiing
43 > Lacey Holiday Party

Info

4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60 > Photo Contest
Winners of the December Contest and the theme for the February Photo Contest
66 > February Quiz and the Winners of the December Contest

1989년 12월의 냉해 극복기

냉해는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 우리는 냉해를 통해 ECONET 가족을 얻었다. –

글 – 힐탑가든 제리 필그림 부사장

1989년 냉해가 남긴 처참한 피해의 현장
Devastating damage caused by the freeze in 1989

12월 23일 밤 일기 예보는 심상치가 않았다. 냉해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됐다. 2월에 냉해를 한차례 겪은 바 있는 회사로서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천재 지변의 볼모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이병훈 대표는 냉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해외 농장 담당 매니저와 함께 멕시코로 향했다. 방문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에도 생산을 지속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알로에 잎의 공급을 확보한다.

둘째, 냉해 한계선 이남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회사의 번영과 장래가 자연의 섭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한다.

라이포드 농장과 할링젠 생산 시설의 직원들은 날씨가 온화하고, 특히 겨울 날씨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농작물이 궂은 날씨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냉해에 관한한 무방비 상태였다. 1983년 냉해 당시, 지역내 곳곳에서 플라스틱 수도 파이프가 얼어 터지고, 상점 문을 여는 순간 수리용품이 동이 났던 것을 기억했던 직원들은 냉해가 닥쳐서 혹시 피해가 발생했을시, 이를 복구하기 위해 여분의 파이프를 넉넉하게 구입해 두기로 결정했다.

그날, 할링젠에서의 밤은 무척이나 길었다. 건물들을 점검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고, 기온이 위험수위까지 떨어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다. 그러나, 별다른 큰 피해없이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라이포드 농장 상황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크게 걱정이 되었다. 우리의 우려는 충분히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고, 라이포드의 피해 상황을 확인받던 중 생산 담당 매니저 오로라 가르시아는 우리는 앞으로 3일내에 최대한 알로에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재파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장에서 더 이상의 수확은 어렵다고 알려왔다.

냉해 발생 직전 찍은 사진(1989년 11월경).
여기 모인 사람 모두가 냉해를 극복한 강한 투사.
A picture taken shortly before the freeze (around Nov. 1989). Everybody here is hard fighter who overcame the freeze.

농장에서의 최대 문제점은 결빙으로 인한 배관 시설의 대규모 파손이었다. 특히, 당시 이용중이던 오픈 배관 시스템에 대한 타격이 컸다. 유지보수 담당 관리자에게 할링젠에 계속 남아 있으라 하고 나는 피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농장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필요한 수리용품 목록을 보낼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내가 농장에 도착하자, 전직원은 이미 팔을 걷어 붙이고 생산 재개를 위한 수리를 한창 진행중이었다. 비록 농장장은 이병훈 대표와 멕시코에 가 있었지만, 이들은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남은 제품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는 제품을 최대한 구제했으며, 수리가 필요한 여러 부분에 집중하였다.

이병훈 대표는 마리오 써너의 도움을 받아 생산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로에 잎 공급원을 확보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여 멕시코 농장을 매입하였다.

1989년 냉해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병훈 대표가 텍사스로 귀환한 후에 일어났다. 냉해가 닥쳤을 당시, 나는 알로콥에 입사한지 채 2주가 안된 신참내기였다. 내가 통솔해야 하는 직원들은 많았지만 그들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사태를 직면했을 때, 미국내 기업들이라면 모두 직원들중 핵심 인원을 선발하여 회사 재건을 추진하고, 나머지 직원은 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도록 하는 수순을 거친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비용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나는 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 핵심 요원인지를 알 수 없었고, 이병훈 대표가 텍사스로 돌아오자 마자 나는 그를 만나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 설명을 들은 이병훈 대표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우리 직원들은 일자리와 가족 부양 책임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낙담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휴직자는 없을 겁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 도장 작업을 다시하고 수리를 시작하십시오. 전직원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직원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들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로도 이병훈 대표를 위해 16년간 근무했지만, 에코넷과 이병훈 대표를 위해 일하는 것이 다른 여느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왜 다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순간은 바로 그 날이었던 같다. 그는 진정으로 직원을 가족처럼 아껴 주신다.

◇ 제리 필그램은 알로콥 사업의 베테랑으로 현재 알로에의 역사적 유적지인 힐탑 가든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다.

Freeze of December 1989

The Freeze was a blessing not a trial

We gained ECONET family through the freeze.

By Jerry Pilgrim / The VP of Hilltop Gardens

The weather report for the night of December 23rd was very troubling; it looked like the possibility of a freeze was likely. After the freeze that we had in February, the company anticipated that it might take a real hit. Bill Lee had decided that long term we could not be held hostage to the weather and when the weather had started looking like a freeze, he had taken the International farm Manager and headed to Mexico. The purpose of the trip was two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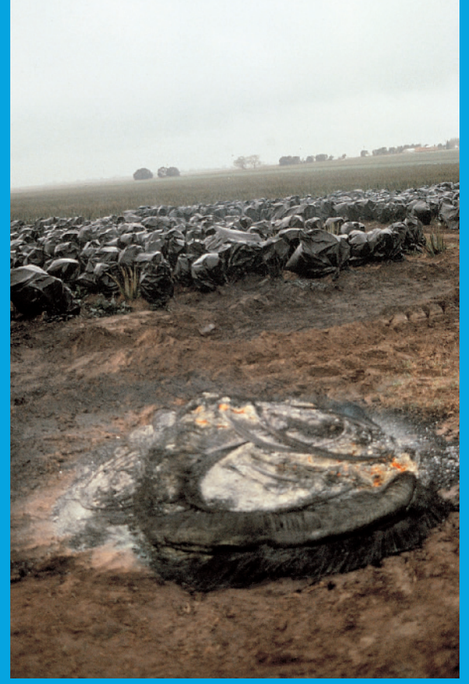
#1: To secure a leaf supply so we could continue production and grow the company in the year of 1990.

#2: To purchase a farm below the freeze line so the health and well being of the company would not be so reliant on the whims of Mother Nature.

The crews at both the Lyford farm and the Harlingen production facility had the problem of weatherproofing as much as possible in an area that is known for its mild winters and good winter weather. However, nothing in the area was freeze proof. Knowing that in the freeze of 1983, after the plastic water pipes had frozen and busted all over the valley and remembering that repair parts were sold out as soon as stores were opened, it was decided that we would buy a good supply of piping to repair the possible damage we would receive in a bad freeze.

It was a very long night in Harlingen, checking the building facilities for damage and watching the temperature fall to dangerous levels, but we came through it with little damage; but we still held great fear for the storm's effects at the farm in Lyford. Our concerns were well grounded, and after hearing confirmation of the devastation in Lyford, my Production Manager Aurora Garcia informed me that we had a maximum of three days to produce as much aloe product as possible, emphasizing that nothing else would come off of our farm until replanting.

The biggest problem on the farm was that it had massive damage to the plumbing due to the freezing conditions, especially affecting the open piping system that was in use. I told the maintenance manager to stay in Harlingen and I would go to the farm to evaluate the damage. He was told to wait until I contacted him with a list of the needed repair parts. When I arrived at the farm, I found the whole crew working to repair the damage so we could get back into production. Even with their manager in Mexico with Bill, they wer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get the repairs completed and salvage as much product as possible. We salvaged as much product as possible and concentrated on the many areas that required repair.



Bill Lee, with the assistance of Mario Sunner, acquired a leaf supply to ensure our continued production. He also purchased the Mexico Plantation for our long-term stabi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appened in the freeze of 1989 happened upon the return of Bill Lee to Texas. I was very new to Aloecorp with less than two weeks with the company when the freeze hit. I had a large crew but I had little knowledge of the their abilities. The normal procedure in this type of situation in all of the US companies that I have worked for would be to select the key crewmembers to rebuild and put everyone else on layoff until we could get back into full production. Tough break for the holidays, but necessary to control cost. I did not have enough time with the crew to know who were the critical employees, so as soon as Bill arrived back in Texas, I met with him and explained my dile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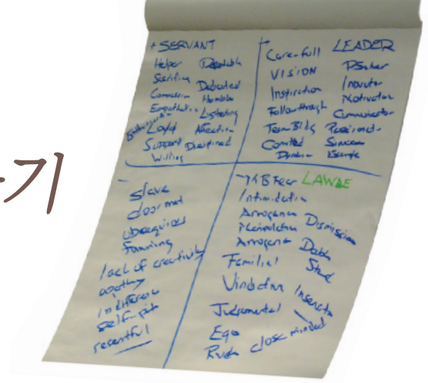
After listening to me, Bill sat back and thought for a few minutes and then he said, "Our employees depend on us for their jobs and the ability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ey have not let us down and we will not let them down. There will not be any one laid off. Repaint and repair the building. Do everything possible to keep everyone productive, but we will not lay off our employees. They are our family."

Even after working for Bill Lee these sixteen years, it is still that moment which best defines why working for him and his ECONET of companies is different than working for anyone else. He truly feels his employees are family.

◇ Jerry Pilgrim is a veteran of Aloecorp business. He is a currently VP of Hilltop Gardens, Historical home of Aloe.

서번트 리더쉽 참가기

"각 개인은 타인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글 – 로사 파크스

시작 부터가 무언가 심상치 않다. 서번트와 리더가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 이번 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되었던 짐 엠리치(Jim Emrich)씨가 대형 스크린에 쏘아올린 문구다.

지난 11월 1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까지 에코넷 웨스트에서는 강사로 짐 엠리치씨를 초빙하여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버트 리더쉽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짐 엠리치씨는 일반 관리, 기업 재무, 리더쉽 개발 및 조직 행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자로 35년간 일해온 전문가이다. 그의 다양한 경력이 말해 주듯이, 강의는 어느 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제와 실무가 소개되었다. 서번트 리더쉽의 핵심은 서번트와 리더가 따로 분리되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리형이 아니라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없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동료에게 획일화된 작업지시를 하기보다는 먼저 일을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고 동료로 하여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치와 동기가 부여된 동료들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어느 때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참여는 또 다른 동기부여와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범을 보이는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짐 엠리치씨는 강의중에 서번트 리더쉽은 끊임없이 자아에 도전해 어렵고 위험한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훌륭한 지도자 상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노예가 될 것인가, 협조자가 될 것인가, 독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함께 지닌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강요적인 지도자는 늘 내 생각만이 진리요 길이다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노예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마치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처럼 지시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나의 길이 아니고 가장 효과적이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동료들과 함께 기업이라는 공간을 통해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일차적으로 매니저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에코넷 웨스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 직원이 서번트로서 동시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게 하는 것이 올 한해의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이다.

Report on the Servant Leadership Workshop

"Each Person Must Live their Life as a Model for Others"

By Rosa Parks

It sounded extraordinary from the very beginning. At a training session I attended on the topic of how a servant and a leader can harmonize with one another, this is a phrase Jim Emrich, a lecturer invited to speak at the session, beamed onto a large screen.

ECONET West invited Jim Emrich to hold a training session on servant leadership for a group of staff members from nine in the morning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on November 14, 2005.

Jim Emrich is a specialist with a proven track record of over 35 years in various areas, including general administration, corporate finances, leadership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As indicated by the breadth of his experience, his lectures are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topic; they revolve around examples and real-life stories that stimulate the curiosity of participants and stir their motivation. The core of servant leadership is not separating the roles of servants and of leaders, but cooperating and creating synergy between the two with no beginning or end, like a Moebius strip. For instance, in order to be a good leader, you need to set an example and foster an atmosphere that encourages your coworkers' participation rather than unilaterally giving them instructions. Colleagues who are motivated and have a goal to work for will have a clear sense of objectives and goals and take on a proactive attitude that helps them perform their tasks more efficiently than ever. Such participation will, in turn, motivate and set an example for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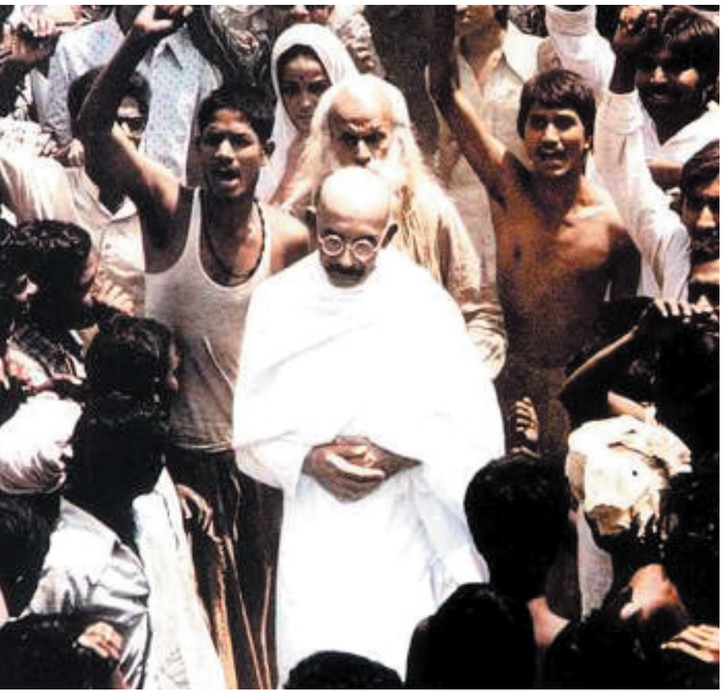
However, living a life as a model for others does not appear to be easy. Jim Emrich made it clear in his lecture that servant leadership is a difficult and risky concept because it is constantly challenging oneself.

He also stressed that in order to establish an image as a good leader, balance is important: whether to be a slave, a supporter, a dictator, or a true lead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ll of these. For instance, an excessively forceful leader is a person who always argues that only his or her opinion is accurate and correct, while a slave-like person simply waits for instructions as though he or she does not have any ideas or plans of his or her own. However, a true leader is a person who does not insist on his or her own way, but seeks a way that is most effective and satisfies a majority and sets off on a long journey with his or her colleagues through the landscape called a business.

As an initial step, the recent training session was geared toward managers and upper-level staff. ECONET West plans to hold ongoing training sessions for the entire staff. One important task for this year is to cultivate the qualities of both a leader and a servant within each and every employee.

서번트 리서십 테마 칼럼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인사팀 김남규 팀장



▲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기업문화코드의 이론적 배경으로 대두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하여 월별 테마를 통해 조금씩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단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에코넷 내부에 체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월의 테마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을 통한 권위에 의해 리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와 희생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은 실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James C. Hunter의 [The Servant Leadership]을 보면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관대하게 '행동' 하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아야 하고, 친절해야 하며, 교만하거나 성내지 말고, 무례하지 말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말고, 불행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 것이며, 진리에 기뻐하라' 이 구절 어디에도 감정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신 남자 사우들께서는 혹 아내에게서 "사랑한다고? 맨 날 말로만." 이란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런 얘길 많이 들으시는 에코네시안께서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을 위해 하루에 단 15분도 시간을 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2월에는 주변의 에코네시안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지난 하이난 캠핑 워크샵에서 Stuart회장님께서는 동료들에게 과일을 깎아 나누어 주는 행동과 같이 작은 실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여러분께 귀찮게 여겨지는 부탁이 들어 오더라도 친절하게 도와줍시다. 누군가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피해가 오더라도 너그럽게 참아줍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료에 대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이 모두가 다 고귀한 서번트 리더십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나에게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 한번 둘러 보세요.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3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작은 사랑에 대한 보답하기' 입니다.

우리는 2월의 테마 기간 동안 에코네시안에 대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누가 나에게 친절과 봉사 즉,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본래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보답을 바라는 사랑은 아닙니다. 행동에 기반하고 봉사와 희생에 입각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월의 작은 사랑 실천하기를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에코네시안은 성인이 아닙니다. 응답 없는 메아리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는 훌륭한 에코네시안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지 맙시다. 서로에 대한 호응을 통해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공명하는 에코넷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느끼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나에게 이런 친절과 봉사를 베푼 고마운 에코네시안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너무 큰 보답은 오히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봅시다. 그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 거들어 줍시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카드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창의를 인재상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에코네시안들은 이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감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꿈의 대화'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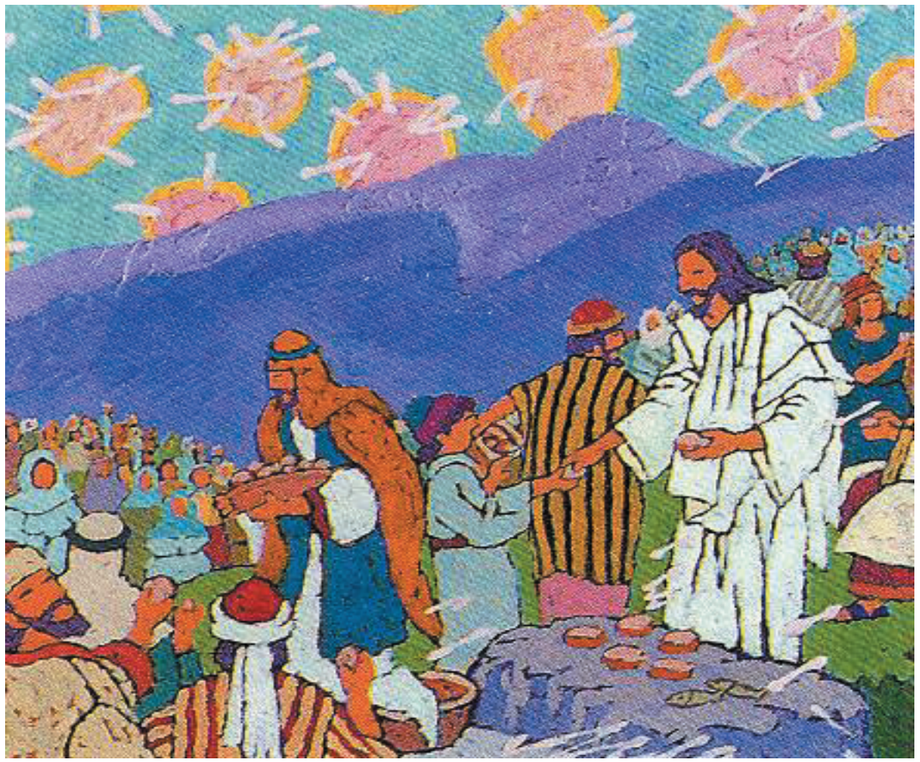
꿈의 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즉 비전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중장기적인 인생의 목표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리되지 않은 모호함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을 갖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사람은 더욱 흔치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성공의 가도로 진행 중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면에 자리잡은 비전의 강력함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슴 속에 숨겨둔 비전이 아니라 글로 쓴 비전의 강력함에 대해서 입니다. 1953년 예일대 졸업반 학생 중에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20년 후 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 3%의 예일대 졸업생들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에 비해 20배, 30배의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구축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글로 쓰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중산층 10%와 거의 전혀 목표를 갖지 못한 서민층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2배, 3배, 5배 정도의 차이에 그쳤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타인의 욕망이 아닌 욕구를 규명하고 이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 권위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규명하는 일은 서번트 리더십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욕구는 규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ECONET 기업문화의 핵심으로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를 만드는 것으로 정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꿈의 대화' 는 또한 ECONET의 오랜 전통에 다름이 아닌 활동입니다. 이 4월의 테마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팀별로 또는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본부별로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를 그려보고 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Servant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Kyu Kim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Servant Leadership has emerged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ur corporate culture, and we have established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to allow you to learn about servant leadership little by little through monthly themes. It is also designed to internalize servant leadership within ECONET through actual practice instead of mere theoretical study.

The theme for February is practicing a little love.

Servant leadership means leadership through respect built upon services and sacrifice, and not control by power. Services and sacrifice are founded upon love. In servant leadership, love is not a matter of emotion; instead, it defines love as "an expression of caring feelings."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practice is stressed in love.

In *The Servant: A Simple Story About the True Essence of Leadership* by James C. Hunter, the love of the Lord Jesus in the New Testament is interpreted as action-based unconditional love for others. The Word of God to "love others" is not about having positive feelings for evil people as well, but a command to act generously. Whether a good feeling or a bad feeling, it is not something we can control through our efforts or will. Corinthians 13 says,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is not jealous or boastful; it is not arrogant or rude.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it does not rejoice at wrongdoing, but rejoices with the truth." There is no mentioning of emotion at all.

Perhaps some of our married male employees may have heard from their wives, "So you do love me? Yeah, right. That's what you say…" ECONETIANs who hear this often, including myself,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Parents who do not spare at least 15 minutes each day for their children cannot dare say that they love their children. Love is all about actions.

My dear ECONETIANs! Let's practice a little love for other ECONETIANs around us in February. At last year's Camp Workshop on Hainan Island, Stuart Ochiltree said that a small action, such as slicing and sharing pieces of fruit with colleagues, is also servant leadership. Although some may ask you bothersome favors, let's graciously help them. If someone makes a mistake and inconveniences you even slightly, let's be generous and patient. Also, let's be active and show a little kindness to our colleagues. All these are a part of practicing valuable servant leadership. Then, look around who is practicing such love for you. Your joy will be doubled.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March is "Returning a Little Love." In January, we practiced a little love for ECONETIANs and carefully watched who practiced a little love, such as kindness and favors, for you.

The love originally described in Servant Leadership does not expect returns. It is action-driven and close to unconditional love founded upon service and sacrifice. Therefore, practicing a little love in February was not based on any expectation of returns.

However, we ECONETIANs are not saints. Echoes without replies can become wearisome. Moreover, we are great ECONETIANs who practice servant leadership. We should not let love demonstrated to us disappear into a void. By responding to each other, we can ensure all of us feel that together we form the ECONET community, where we live together and sympathize with each other. In March, let's express our appreciation to those wonderful ECONETIANs who have shown kindness and rendered services to you. Too great a return may make the other party uncomfortable. Let's find something that is simple yet can bring great joy to them. Let's give them a hand when they have a heavy load to bear. How about sending them a nice little thank you card? ECONETIANs, who consider creativity an important virtue for a man of talent, will certainly be able to find a variety of ways to express their gratitude.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April is "Sharing Dreams."

This is to create a chance to share one's vision or dream with others. By having frank discussions about the mid- to long-term goals in our lives, we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what our needs are.

Surprisingly, however, not many people have vision. Even those who claim to have one often have only vague ideas that are not clearly defined. Very few people build a vision and realize it according to a well-organized plan. In most cases, such people are already very successful in life or are heading toward success.

Those who study the success stories of great people always mention the power of vision that lies behind their success. To be more exact, it is not about the vision tucked away in their minds but the power of vision put down in writing. A 1953 survey of Yale University graduates revealed that only three percent had their goals laid out in writing. When they were surveyed again 20 years later, this three percent had built 20-30 times more wealth and social influence than ten percent of those who did not have their goals in writing. According to this survey, the difference between ten percent of those who didn't have their goals in writing and those who didn't have any goals at all was only two to five times.

Servant leadership is based on a theory that leadership can be demonstrated through respect by identifying others' aspirations, and not yearnings, and rendering services for them. Therefore, defining one's aspirations is an essential step in order to engage in servant leadership. However, aspirations cannot be defined if one does not have goals or vision.

We have already set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 happiness together" as an integral part of ECONET corporate culture and exerted great efforts. "Sharing dreams" is an activity just like ECONET's long tradition. In order to undertake this theme for April, each team (or division, if there are few staff members) needs to set aside time to draw up long-term goals and hold discussions on them.

ECONET East의 중장기 인사 전략의 실행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상무이사 윤경수

올해는 남양알로에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남양알로에를 창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남양알로에는 기업의 나이로 완숙한 청년의 연륜을 가지는 해이다. 또한 남양알로에가 Global Direct Sales Company로 새롭게 거듭나는 해이다.

올해는 ECONET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3개년 발전 계획의 1단계인 Phase I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Phase II를 시작하는 해이다. Phase I에서는 ECONET 각 계열사가 수직계열화된 Network를 움직이는 기본 Infra를 구축하고,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 Business Model을 완성했다. Phase II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확대를 하는 해이다.

올해는 SHRM Roadmap상으로도 중요한 해이다. SHRM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계획이다. 이 계획은 현재에도 ECONET EAST 각 계열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급이상 인원 60여명이 2003년 10월 31일에 모여서 수립하였다. 올해는 SHRM Phase I을 마무리하고 Phase II를 시작하는 해이다.

SHRM Phase I에서는 첫째, 육성측면에서 역량기반의 교육체계인 SVC교육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둘째, 임직원의 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였다. 셋째, BSC에 기반한 전임직원 평가체제 구축을 완료했으며, 전략과제의 Cascading과 KPI Align을 실질화했다. 미흡한 점은 확보측면에서 우수인재확보계획의 수립과 육성측면에서 핵심인력육성제도(HPI)의 수립이다.

SHRM Phase II에서는 ECONET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하여 첫째, 확보측면에서 우수인재 확보에 주력하며 둘째, 육성측면에서 교육효과 측정체계수립, 각 사별 차별화된 교육체계 수립, 부문별 전문가 제도 수립 및 HPI정착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 보상측면에서 임직원의 차별적 보상제도 시행, 승진/승격제도 전면적 개편, 동종업계 중상위 임금수준 확보의 과제를 시행할 것이며, 넷째, 평가 측면에서 BSC평가체제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2006년에는 SHRM Roadmap에 따라 주요한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다. 첫째는 주임제도의 폐지이다. 주임제도 폐지의 목적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Global화된 인재를 신속히 육성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보상제도의 정비이다. 그동안 시행된 연봉제 직원의 집단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적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그 목적은 회사의 비전과 함께하는 우수한 인재의 차별적 보상이다. 셋째는 승진제도의 개편이다. 그동안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한 심사에 기반한 점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제도 정비를 통하여 승진에 시험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 또한 회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함이다. 이 모든 제도의 변화는 2003년에 만들어진 SHRM Roadmap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변화의 성공 요소는 정확한 방향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행안 이라 본다. 따라서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변화에 ECONET EAST 임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Ageless 성공의 비밀 : 신제품 개발 위원회

ECONET 자회사 Committee 사례 : Namyang과 Oasis

글 – (주)남양 경영지원본부 신중현 이사

ECONET 상에서 마케팅 및 판매을 전문으로 하는 오아시스와 제조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남양이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오아시스가 미국내에서 OEM형태로 생산하여 판매되고 있던 제품을 남양이 수주 받아 공급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였다.

2000년 4월 한국에서는 ㈜남양을 남양, 남양알로에, 유니젠으로 분사하여 본격적인 전문화 경영을 시작하였다. 생산회사인 남양에게 주어진 임무중의 하나가 오아시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남양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제품공급을 수주하는 것이었다. 당시 남양은 해외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였지만 오아시스의 도움을 받아 가며 LSF AM제품을 포함한 5품목 7종류를 수주하여 2001년에 처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그 첫 수출 이후 오아시스와 남양은 최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제품 및 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협력 프로젝트는 상호간의 이해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해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남양과 오아시스처럼 국가간의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장벽이 추가되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남양과 오아시스에서도 2004년 상반기에 양사간에 서로에 대한 불만사항이 최고조를 이루고,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크게 추락했었다.

당시 분석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1. *원활한 Communication 문제 및 업무처리 지연*
2. *신제품 개발 Process 및 양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부족*
3. *남양과 오아시스의 내부업무 Process에 대한 상호간의 불만*

이런 문제점의 존재는 남양과 오아시스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크나큰 위기이자 장벽이었다. 문제를 절감한 양사는 2004년 11월 1일 시애틀에서 이틀간의 대책회의를 갖고 진지한 논의를 실시한 끝에 신제품 개발위원회의 설치, 신제품개발 프로세스, 양사간 물품공급 MOU체결, 양사간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합의(시애틀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 합의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제품 개발위원회 설치 합의*

2. *신제품 개발위원회 운영방안 합의*
3. *신제품 개발위원회 개발위원 선정*
4. *신제품개발 프로세스 협의를 통한 표준 프로세스 확정*
5. *양사간 물품공급 MOU 체결*
6. *남양 오아시스간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확정*
   - *커뮤니케이션 구조 재정립*
   - *월 1회 전략리포트(Strategic Report)작성, 교환, 각 사 경영책임자 공유 원칙 합의*

이에 따라 양사는 매년 3월에는 남양에서, 11월에는 오아시스에서 도합 연 2회의 신제품 개발위원회 회의(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시애틀 합의는 상호간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원칙과 룰이 명확하게 정립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신제품 개발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와 물품공급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공동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컨센서스를 구축하였고, 신제품 개발위원회 설치와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고 양사간 및 관계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명확한 원칙의 정립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상호간 신뢰의 바탕 위에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 효과는 2005년 Ageless Xtra와 같은 히트 상품의 창출로 이어졌다.

큰 틀에서의 원칙은 정립되었지만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노력하고 발전시킬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아시스현장의 매출현황 공유, 각 부문 실시간 재고현황 공유, 주문추이 공유, 남양 각 제품별 원자재 및 생산리드타임 개선, 신제품정보공유, 오아시스 주문에 의한 선적물동량 정보 공유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는 근 시일내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은 계속 되어야 한다. 오아시스와 남양은 이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한 신뢰를 구축하여, 더 좋은 친구, 동료, 가족으로 발전하고 그 발전이 가져오는 달콤한 결실도 함께 나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ECONET의 문화코드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The secret behind the big hit of Ageless;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An Example of ECONET Subsidiary Committees: Namyang and Oasis

By Junghyun Shin, Director of Management Support Office Namyang Company / Korea

It was in 2001 that Oasis, an ECONET marketing and sales group, and Namyang, a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subsidiary, began to collaborate and initiate joint projects. Namyang began to receive orders for products that Oasis secured and sold in the US through contract manufacturing.

In Korea, in April 2000, Namyang was split into three companies-Namyang, Namyang Aloe and Unigen Korea-and began specialized business operations in full swing. One of the missions assigned to Namyang, a manufacturing company, was to receive orders for products sold by Oasis so that Namyang could produce them and supply them to Oasis. Although Namyang was inexperienced in international business at that time, with the assistance of Oasis, it received orders for seven types of five items, including LSF AM products, and exported its first shipment in 2001. Since this first export, Oasis and Namyang have made concerted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s well as existing products to maximize their synergy.

However, since all collaborative projects are bound to come up against a conflict of interest, reaching an agreement through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s most important at all times, but is also quite challenging. Moreover, just as in the case of Namyang and Oasis, it becomes much more difficult when a cultural gap and language barriers are added to an already challenging task. Namyang and Oasis' divergence peaked in the first half of 2004, and as a result the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was severely damaged.

The issues identified at that time are as follows.

1. ***Poor communication and delays in business processes.***
2. ***A lack of common understanding regarding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the role of each company.***
3. ***Dissatisfaction with each other's internal business processes.***

These were critical issues that impeded the generation of synerg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Namyang and Oasis.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the two companies held a two-day meeting in Seattle, Washington on November 1-2, 2004 in order to address them. After in-depth discussions, Namyang and Aloe developed the four-point "Seattl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the standardization of a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the signing of an MOU on the supply of goods, and an action plan to improve bilateral communication.

Through the agreement,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achieved.

1. ***Agreement to establish the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2. ***Agreement on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3. ***Appointed members of the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4. ***Finalized a standard process through discussions regarding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5. ***Signed an MOU on the supply of goods***
6. ***Finalized a plan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Namyang and Oasis***
   - Redefined a communication structure
   - Agreed to prepare, exchange and share a monthly Strategic Report among the CEOs of the two companies

Accordingly,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meetings are held twice a year; hosted by Namyang in March and by Oasis in November.

The Seattle Agre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defined specific and practical principles and rules for initiating joint projects. The formation of an agreement standardizing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igning of an MOU on the supply of goods enabled the two companies to build the consensus necessary for the initiation of joint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ET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and a communication improvement plan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 formal channel for problem-solving and facilitated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and related officials. Clearly defined principles and active communication have facilitated effective business processes based on mutual trust. Such sound and robust cooperation has led to the breakthrough of a hit product, AgelessXtra, i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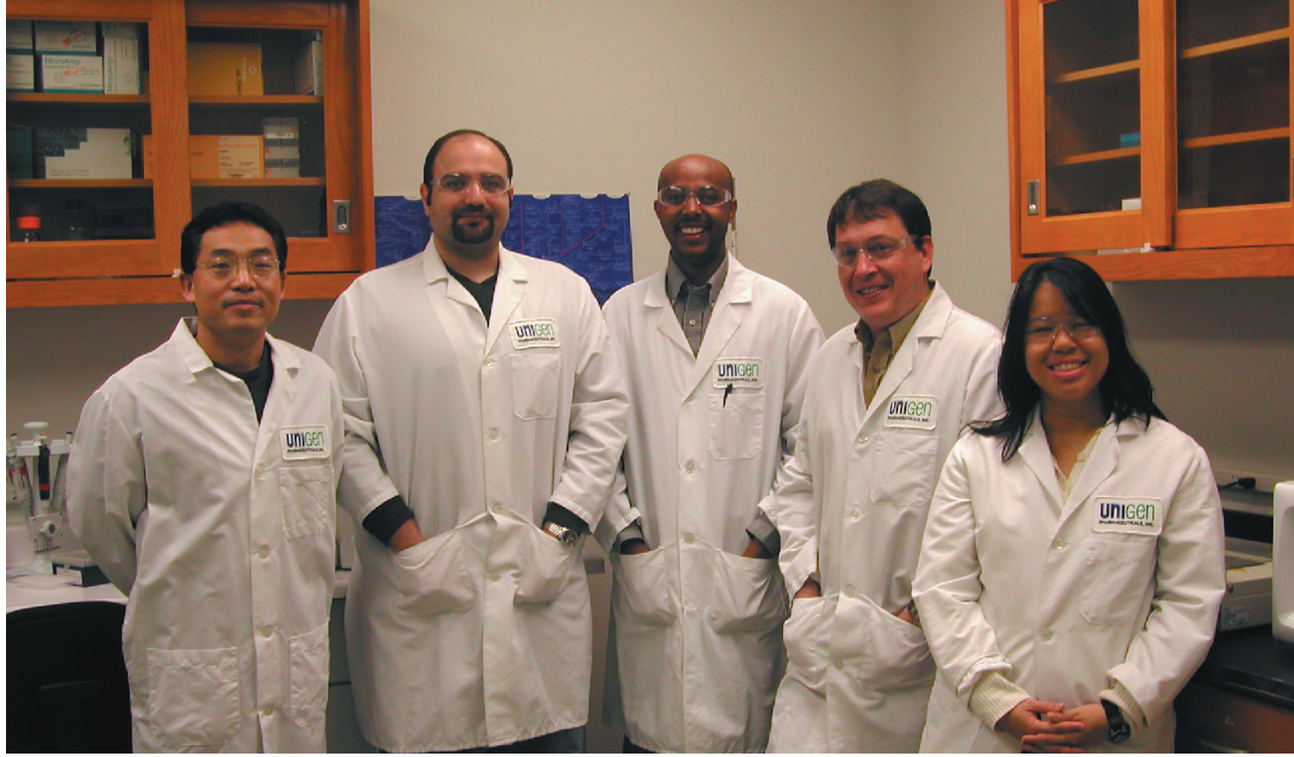
Although principles for a high-level framework have been defined,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further efforts and improvements in the details, including the sharing of Oasis sales revenue, the real-time sharing of inventory, the sharing of order trends, the improvement of lead time for raw materials and the production of Namyang products, the sharing of new product processes, a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shipping quantity for products ordered by Oasis.

In the near future, we should be able to work together to find optimal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which we are currently aware. However, it does not end there. A process for identifying new issues and addressing them should be reiterated. Through this, Oasis and Namyang can solidify their trust in each other, become closer friends, colleagues and families, and share in the sweet outcome of their development. This may be described as drawing a part of the big picture: the ECONET culture cod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 happiness together."

"물고기들이 친구들이듯 우리도 친구들이다"

유니젠 미국 발견검증부

자오 박사가 종종 "내 생애 최고의 팀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하는 데, 누가 감히 이에 대해 반박을 하겠는가 ?



글 – 유니젠 미국의 발견 검증부 연구원 줄리아 후

다사다난 했던 작년 초에 우리의 아담한 부서는 각각의 개성을 자랑하는 인재들로 가득 채워졌다. 열정적인 파티 팬으로부터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까지 우리 부서원들의 성격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원래 중국 태생인 우리의 팀장 유안 자오 박사는 발견 검증부를 유능하면서도 부지런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다국적 팀으로 탄생시켰다. 자오 박사가 종종 "내 생애 최고의 팀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누가 감히 이에 대해 반박을 하겠는가 ?

매사에 적극적인 우리 팀은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꼼꼼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다. 러시아 출신인 사샤 네스테로브 박사는 Cell-based reporter gene 플랫폼을 구축하는 복잡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는 우리의 검증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는 정교한 작업을 통해 체중 감량 프로젝트를 위한 세포를 만들어냈다. 이학 석사 보유자인 메스핀 이맘 D.V.M.은 이디오피아 출신으로, 효능, 독성, 기타 여러가지 연구를 정성들여 고안하고 실행하였다. 항당뇨 프로젝트 담당자는 줄리아 후로 팀원들중에서 유일한 미국 출신이다. 줄리아는 잠재적 항당뇨 효능 제품 개발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식물 라이브러리를 꾸준히 심사했다. 후만 바쉬리는 본래 이란 출신으로 당사의 기존 및 잠재적 제품에 대한 유전자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여러가지 생화학 시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열정과 동료애 뒤에는, 직장동료로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도 훌륭한 팀을 구성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유니젠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심지어 우리 팀내에서도 몇몇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우리는 각각의 팀원들을 Pixar의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에 비유해 보았다. 우리의 용감무쌍한 리더인 자오 박사는 '길' 이다. 그의 말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 나설 태세이고, 물속 보금자리를 탈출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 그는 먼저 솔선 수범하고 세심한 스킬로 우리를 리드한다. 재밌고 쉽게 흥분 잘되는 '블로트' 역할로는 사샤가 있다. 그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흥분이 고조되어 폭발할 지경에 이른다. '말린' 역에는 메스핀이 적격이다. 말린이 니모를 대하 듯 그는 동물들을 다룰 때 과잉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기억력이 나빠서 깜빡깜빡 잘하는 줄리아는 '도리' 역에 딱 맞는다. 줄리아는 귀찮을 정도로 질문이 많다는 것만 눈감아준다면 진정한 친구로서 손색이 없다. 마지막으로 '크러시' 역에는 후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의 느긋하면서도 쿨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다정한" 거북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니모를 찾아서' 팀은 늘 힘을 합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짬을 내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친구로서의 우정도 키워나가고 있다. 물고기들이 친구이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말 말 말!

1. 유안 자오 박사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팀을 가졌다!" 발견 검증팀장

2. 사샤 네트테로브 박사

"의견은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틀린 의견이고, 두번째는 나의 의견이다."

3. 줄리아 후

"친구들이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4. 메스핀 이맘 D.V.M.

"아직도 우리의 다정하고 근면하고, 재미로 똘똘 뭉친 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루만 한번 지내보시죠?"

5. 후만 바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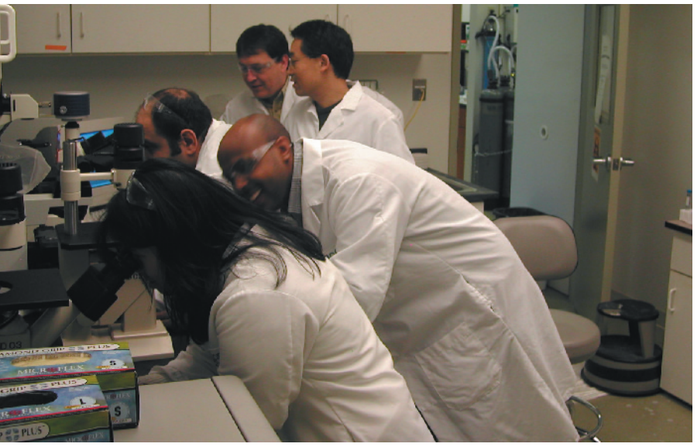
"여러분, 유전자는 정말 '쿨'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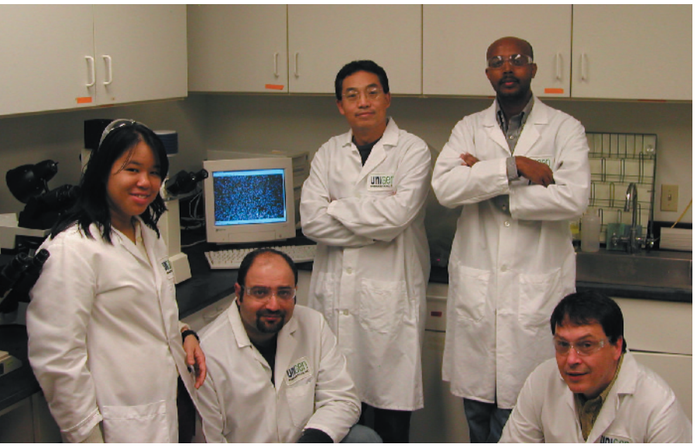
"Fish are friends and so are we."

Discovery and Screening Department, Unigen USA

He often says, "I have the best team, I have ever had!" Now, who are we to argue with him?

Written by Julia Foo, Research Associate, Discovery and Screening Department, Unige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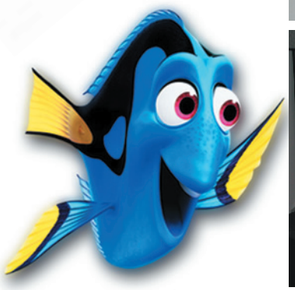




At the beginning of this eventful year, our small department became fully staffed with an assortment of personalities. We have a range of characters from the vibrant party-seekers to the quiet introverted types. Our team leader, Yuan Zhao Ph.D. who is originally from China has constructed an international group of talented and hard-working researchers for the Discovery and Screening Department. He often says, "I have the best team, I have ever had!" Now, who are we to argue with him?

Our proactive team consistently works hard and meticulously to do whatever it takes to get the job done. Sasha Nesterov Ph.D., who is from Russia, has taken into his hands the complex project of establishing a cell-based reporter gene platform. This will increase our screening capabilities. He has delicately engineered cells for a weight loss project. Mesfin Yimam D.V.M., M.S. is from Ethiopia. He has carefully devised and performed efficacy, toxicity and various other studies. Working on an anti-diabetic project is Julia Foo, the only member of the team from the USA. She has tirelessly screened the impressive and extensive plant library for potential anti-diabetic products. Houman Bashiri is originally from Iran. He monitors gene expression in response to our current and potential products, as well as develops various biochemical assays.

Behind all the science and the comradery, we have a terrific team of scientist who are not only co-workers but also friends. Unknown to most employees at Unigen (and even to a few in our team), we have carefully characterized each team member in comparison to a cast member from Pixar's "Finding Nemo." Yuan, our courageous leader is Gill. We would follow him anywhere, even to escape our aquatic habitat. He leads by example and with exquisite skill. For our fun and easily excitable fish, Bloat, we have Sasha. He blows up with excitement over his quality results. As Marlin, we have Mesfin. He is as overprotective of his animals as he is with Nemo. For her tendency to have a little memo loss, Julia fills the role as Dory. She also can true friend if you look past her irritable questioning. Rounding up the cast is Houman as Crush. His laid-back cool ways define what a "sweet" turtle he is. It's not hard to find our own "Finding Nemo" cast-mates working hard together and also taking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not only as co-workers but friends. Always remember that "Fish are Friends and so are we."



Quotes from the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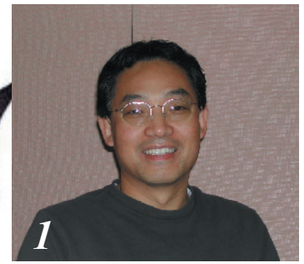
1. Yuan Zhao, Director of Discovery and Screening
"I have the best team, I have ever had!"

2. Sasha Nesterov Ph.D.
"There are always two types opinions, the first one is wrong and the second is mine."

3. Julia Foo
"It's nice to be able to come to work where you friends are."

4. Mesfin Yimam D.V.M., M.S.
"In case you have not heard about our caring, industrious and 'funogenic' team, come spend a day with us"

5. Houman Bashiri
"Genes are cool, dude!"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젠 연구기획 관리본부 본부장 차지민 이사님과 함께 한 따~뜻한 인터뷰

글 – ㈜유니젠 한국 장미라 기자

ECONET East 전 직원이 함께 모여 열렸던 시무식이 있은 다음날 평소 조껍데기 막걸리를 사랑하시는 ㈜유니젠 연구기획관리본부의 본부장이신 차지민 이사님을 모시고 이사님의 아담한 기숙사 방에서 막걸리와 함께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문) 에코네시안이 되신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는데, 요즘 지내시는건 어떠세요~? 기숙사 생활은 어떠신지요?
답) 추운거 빼고는 지낼만 해요. (웃음) 도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고, 신문이나 뉴스도 덜 보면서 세파와 떨어져도 있어보고..
새로운 환경들에 익숙해 지고 있어요.

문) 이사님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 안사람하고 딸 둘이 있어요. 큰 딸은 중3이고 이름은 예주 라고 하고,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윤아라고 해요.

문) 평일엔 병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셔야 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데 어떤 점들이 힘드세요?
답) 주말엔 쉬기도 해야하고, 가족들과도 있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 몰아서 할려니 시간이 늘 빠듯하네요.

문) 떨어져 지내게 되시면서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답) 뭐라고 한다기 보다도 돈 쓸일을 자꾸 만들더라구(웃음) 외식도 해야하고, 놀러도 가야해요. 일주일 동안 미뤄 뒀던 것들 한꺼번에 나가게 하더라구요.

문) 가족들 자랑 좀 해주세요.
답) 음. 장인어른이 성균관 유생이시다 보니 안사람이 굉장히 엄격한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한국적인 가족에 대한 사고가 강한데 이런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큰딸 예주는 붙임성이 좋고 저처럼 문학을 좋아해서 문과쪽인 것 같고 작은딸은 윤아는 말을 너무 많이 시켜서 피곤하기는 한데, (웃음) 알고 싶어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과학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식이란게 그렇듯 둘 다 저 한테는 하나의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문)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셨나요?
답) 음, 글쎄,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구나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회 생활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문) 두 따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요?
답) 큰 애가 "아빠, 나 커서 뭐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해준 대답은 "남들을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 말했어요. 국제기구 같은 곳들도 있고,그런 곳에선 좀 더 남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대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찾아야지 목표가 되선 안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둘째 윤아는 예주에 비해 많이 데리고 다닌적이 없어요. 예주는 영국에서 크면서 영국과 유럽, 스코틀랜드 등 많이 다녀봤는데 작은애는 한국에서도 근처에도 잘 데리고 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문)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요?
답)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족하게 자라서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랄 때 비해 아쉬운 점은 맑은날 밤에는 숱하게 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별들을 볼 순 없어도 가슴 속에 그 별들을 키워 나갔으면 하는게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문)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에코넷웨이에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합니다.

여건상 직접 댁에 방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사님과의 인터뷰 내내 그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Scientist 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문학과 역사를 좋아하셨고 인터뷰 동안에도 그 문학적인 말씀과 조용조용한 말투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기자의 비록 서툰 글 솜씨지만 그 따스함이 읽는 분들에게 잘 전달 되기를 바란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차지민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차이사님 가정에, 유니젠과 에코넷 직원들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래본다.

Welcome to My Home

A warm-hearted interview with Director Jimin Cha, Head of Research Planning & Management Headquarters, Unigen Korea

By Reporter Mira Jang, Accounting HR Team / Unigen Korea

On the day after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new year attended by the entire staff of ECONET East, the interview with Director Jimin Cha, who is a great fan of foxtail millet makgeolli (a kind of spirit), began in his modest room in the dormitory while sharing some of his favorite beverage.

Q) It has already been over seven months since you became an ECONETIAN. How is your life these days? How do you like staying at the dormitory?

A) Everything is fine except for the cold weather (laughs). I escaped urban life and came to a new environment. I am adapting well. I read newspapers and watch TV less and stay away from the rough-and-tumble of life. I am getting used to the new environment.

Q) Please introduce your family to our readers.

A) I have a wife and two daughters. The elder one, Yeju, is in the ninth grade and the younger one, Yuna, is in the third grade.

Q) You are a so-called "weekend couple" because you have to stay at the dormitory in Byeongcheon on weekdays. Do you experience any difficulties living this lifestyle?

A) On weekends, I need to relax,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catch up with my friends… but it's just not enough time. I need to do all this on weekends and I always run out of time.

Q) What did your wife and daughters have to say about your staying away from home?

A) Well…. they don't say much. They just come up with excuses to spend money (laughs)…. We need to go out for meals, go on weekend trips, and so on…. I end up spending everything I saved that week.

Q)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roud of about your family.

A) Um… My father-in-law was a Confucian at Seonggyungwan, a national Confucian academy. Naturally, my wife grew up in a very strict Confucian family and has a strong view on Korean family. I like this very much. Yeju is sociable and likes literature, like me. I think she has an aptitude for literature. Yuna… she wears me out because she asks me too many things (laughs). However, she is curious about a lot of things and she wants to try all sorts of things. I think she has strong science skills. At any rate, just as every child is, both of them are great pillars to me and lend me support.

Q) What makes you most content when you're with your family?

A) Well… I place great value on the fact I have a home to look after and be responsible for. It brings great energy to my social life.

Q) What would you like to tell to your two daughters?

A) Yeju once asked me, "Dad, what should I be when I grow up?" I said, "You should be a professional who helps many people."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you can help many people by working with them.

Also, seeing how children are under great pressure from school and studying, I don't want university to be their life goal. I'd like to let them know that university should be a part of the process of realizing their dreams and not the goal itself.

Compared to Yeju, I didn't have much of a chance to take Yuna traveling. While living in the U.K., I took Yeju to many places in the U.K., Europe and Scotland. I don't think I have even Yuna to many places in Korea. I regret that.

Q) What would you like to ask of your family?

A) Growing up in a very liberal and abundant environment, children these days tend to be individualistic. When I grew up, a clear night would be lit up by a myriad of stars. We don't see this in Seoul these days. I miss that. As a father, I hope that although my children cannot see these stars, they will still nurture the stars in their hearts.

Q) Thank you for your time and for agreeing to this interview.

A) Not at all. It was a great pleasure. I hope to read stories of many other families in ECONET WAY in the future.

Although I couldn't visit his "real" home, I was able to feel his love for and pride in his family throughout the interview. He takes great interest in literature and history, which is very unusual for a scientist. During the interview, his literary remarks and calm and eloquent manner of speaking felt truly warm-hearted. I hope his warm-heartedness is properly conveyed to our readers despite my poor writing. I sincerely appreciate Director Jimin Cha's sparing his time and agreeing to this interview. I wish all Unigen and ECONET staff members, including Director Cha, a year full of happiness and joy shared with their families.

에코넷 웨스트
나눔과 베품의 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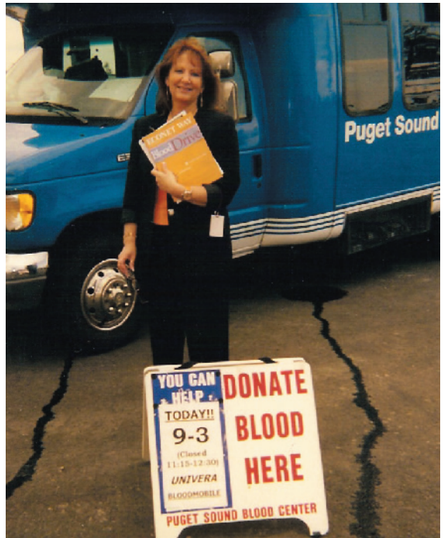
글 – 유니베라, 행정관리/지역사회 봉사활동 코디네이터 바브 풀턴

우리가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을 실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특히 이병훈 대표가 보이는 선례가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5년에 나는 ECONET 계열사의 인심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옆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나눔의 정은 배움과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 시설 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 놓인 우리의 이웃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에코넷 웨스트의 모든 이들에게 2005년은 정말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한 해였다. 워싱턴주로 이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우리에게는 기업 문화의 숙지, 전략 핵심 구성요소의 실행, 영업 활성화, 마케팅 강화, 유니베라, 유니젠 미국, 알로콥, 오아시스의 에코넷 법인으로서의 단결력 강화 등 과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바쁜 업무와 가정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에코넷 웨스트 임직원은 다음의 단체들에 기쁜 마음으로 기부금과 선물, 봉사 등을 제공했다.

1. 온두라스와 아이티의 자선단체
2. The South Sound Community College.
3. Bastyr University (천연 의학 연구)
4. River Ridge 고등학교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5. Puget Sound 혈액 센터와의 헌혈 운동 (당사에서 2회 실시)
6. Tacoma 청소년 스포츠 이니셔티브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
7. 상공회의소 (관련 자료 및 환영 패키지 배부)
8. SAFEPLACE 재단 (가정 내 폭력 및 성폭행 방지)
9. 지역사회의 소년 소녀 클럽 (Boys & Girls Club)
(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의 테이블 후원)
10. 미국 적십자사와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 카트리나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납부
11. 13명의 수양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12. 어린이 체험 박물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권장)

누군가의 삶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리고 각 개인과 가족들이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시간, 자금, 노력을 이웃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에코넷 철학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ECONET WEST A Season of Giving

Written by Barb Fulton, Univera, Exec. Admin. Assistant /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We are so fortunate to be employed by a company that believes in "giving back" to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The example set by Mr. Lee is one worthy of emulation. During 2005 I have seen first-hand how generous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can be, not only to educational facilities to promote learning and vocational studies, but to those in need in our neighborhoods and around the world.

At ECONET West we were very busy in 2005 learning the culture of the company, implementing core strategy components, promoting sales, improving marketing, and striving to make Univera, Unigen, Aloecorp and Oasis a more cohesive ECONET entity in our new Washington home. Yet, even in the midst of our busy work and family schedules, and in addition to their individual community activities, ECONET West employees were willing to participate and provide funding, gifts, or services for the following groups:

1. Missions in Honduras and Haiti.
2. The South Sound Community College.
3. Bastyr University for its study of natural medicine.
4. River Ridge High School marketing education program.
5. Two blood donation drives with Puget Sound Blood Center at our facility.
6. Tacoma Youth Sports Initiativ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low-income minority youth.
7. Chamber of Commerce for distribution with their information and welcome packets..
8. SAFEPLACE Foundation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9. Sponsor a table at a fundraiser benefiting our community's Boys & Girls Club.
10. Contributions to the American Red Cross and Habitat for Humanity for the victims of Hurricane Katrina.
11. Christmas gifts for thirteen foster children.
12. Hands On Children's Museum which encourages healthy lifestyle choices.

Making a difference in someone's life for the better is what we aim for. By supporting health and wellness, promoting self-sufficiency, and helping individuals and families meet their basic needs, we are making a positive impact on our community. Investing in our neighborhoods by donating our time, money and talents in order to enhance others' opportunities to grow and succeed will better us all. This is just one more way in which we are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이규남 (주)남양알로에 중부영업팀 팀장.

이강우 박사님 칭찬에 감사드리며…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를 만나면 느낍니다. 언제나 넉넉한 마음, 한결 같음, 그리고 선한 인상에서 묻어나는 웃음…
이강우 박사님의 칭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글 – 여섯번째 칭찬주인공 (주)남양 연구실 주임 연구원 표한종

칭찬릴레이 일곱번째 주인공은 위트 넘치는 유머와 단아한 매너,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 지금 그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한 그로 인해 남들이 행복해지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행복바구니를 메고 달려가는 중부영업팀 이규남 팀장님입니다.

누군가가 닦아 놓은 길을 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닦아 놓은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쉽고 편안한 길로 걷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대리점의 개설과 지속적인 매출증대의 선봉의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남양알로에에 입사한 이규남 팀장님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껏 부서이동 한차례도 없이 영업컨설턴트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지역 대리점에 이어 2006년 1월부터는 전체지역 중 매출비중이 가장 큰 충청-전라-제주-대전지역의 중부영업팀 팀장님이라는 어려운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규남 팀장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자상하고 인간적이며 의리있고 정 많은 "작지만 강한 남자"라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꼼꼼한 성격에 깔끔한 업무처리로 소문난 일꾼이기도 합니다. 팀내 상하관계보다는 수평관계를 강조하는 이규남 팀장님은 관리자로서의 소양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과 자세는 남양알로에는 물론, 더 나아가 ECONET 전체에게 한단계 더 큰 도약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06년 더 많은 이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 주시고 예쁜 공주님들(소미, 소안), 사모님과 기억에 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yunam Lee *Jungbu SalesTeam Leader, Namyang Aloe*

Thanking Dr. Gangwoo Lee for his praise….
Being praised by someone is truly a great joy. Whenever you meet Dr. Gang-woo Lee, you can sense his generosity, consistency and kindheartedness from his smile. I am deeply grateful for his praise.

Written by Hanjong Pyo, Senior Researcher at the Namyang R&D Center

The seventh runner for the relay of praises is Gyunam Lee, Jungbu Sales Team Leader. Characterized by his sense of humor, polite manner and exhaustive knowledge, Gyunam's presence makes everybody happy, and he therefore willingly brings an abundance of happiness anywhere it is needed.

Traveling a paved road is easy.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someone has paved that road and made traveling easy and convenient for us. Gyunam stood at the forefront of the launching of new agencies and the continuous increase of sales.

Gyunam has served as a sales consultant since joining Namyang Aloe in February 1996 straight through to the present, without ever moving to another department.
After working at the Seoul, Gyeonggi, Incheon, Daegu and Gyeongbuk agencies, in January 2006 he was assigned with a challenging but important mission: to be the Jungbu Sales Team Leader. His team looks after the Chungcheong, Jeolla, Jeju and Daejeon area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of sales in the entire area. Everybody who knows Gyunam will agree that he is a "small but powerful" man who is considerate, humane, faithful and warm-hearted. He also sets a good example in all matters. His meticulousness and rigorous processing are more than just cause to label him a hardworking person. Placing stress on horizontal relationships rather than vertical relationships within his team, Gyunam also has outstanding qualities as a manager. His passionate attitude and deeds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a bright future for ECONET as well as Namyang Aloe.

Please bring health and happiness to a greater number of people in 2006. I sincerely hope this year will be remembered as a year of happiness not only by you, but also by your wife and your lovely princesses (Somi and Soan).

지푸 자오 박사 *유니젠 미국*

글 – 유니젠 미국 치 지아 박사

기업이 혁신을 단행할 때는 대부분 최첨단의 장비와 완벽한 시설 그리고 색다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 투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매우 설득력있는 마케팅 플랜을 준비하는 것 또한 빠지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된 천연 제품 연구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월 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샤먼 제약(Shaman Pharmaceuticals)과 같은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샤먼 제약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가장 다양한 식물상 재고와 장비, 핵심적인 과학 및 기술 전문가 그리고 당뇨병을 타겟으로 하는 확실한 시장을 가진 기업이었지만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5년이 지난 후 파산에 이르렀고 그 동안의 모든 꿈과 대대적인 광고 그리고 수 천 개에 이르는 식물 자원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세계 제1의 천연 제품 기업이 되고자 하는 ECONET 으로서는 샤먼의 실패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CONET 만의 가장 독자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목표와 일에 대한 열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ECONET의 Unigen USA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천연 제품 화학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매우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인류에게 자연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선사하고자 하는 Econet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큰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Dr. Jifu Zhao, Ph.D.이며 운이 좋게도 그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푸" 로 통한다.

Jifu 박사는 중국 북동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매일 매일의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 가족의 농사일을 도우며 보냈다. 따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 대자연의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꿈꾸게 되었다.

Jifu박사는 한 지방 대학에서 중국 전통 한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 공부를 시작했고 4년 후 중국 전통 의학의 TCM 인양 이론을 배우게 된다. 이 이론은 개별 약초 및 10-20개에 이르는 허브로 만들어 내는 수 백 가지의 신비한 조합에 관한 것으로 중국 선조들로부터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치료법이다. 이 때 중국전통 한의사가 되는 대신에 Jifu는 다른 길을 택했다. 대학원 공부를 계속할 목적으로 최고의 천연 제품 연구 기관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중국 전통 의학의 원리를 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쉔양 약학 대학(Shenyang Pharmaceutical University)을 졸업한지는 약 10여년이 되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분석 화학 석사 그리고 약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Jifu박사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있는 천연 제품 기업인 도쿄 한의학 연구소 (Tokyo Oriental Medicine Institute)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모교인 쉔양 약학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천연 제품 화학의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암 예방을 위한 녹차 실험 그리고 미국의 AMC 암연구 센터에서 녹차 커피를 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Jifu 박사는 ECONET에서 진정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Jifu 박사의 자연에 대한 열정은 그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될 만큼 매우 진실된 것이다. 콜로라도에 있을 때는, 그는 주말 그리고 휴가의 대부분을 로키산에서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채집하며 보냈다. 그는 백 가지가 넘는 버섯의 종류를 구별해 낼 수 있으며 걱정없이 가족의 저녁 식사에 내놓을 수가 있다.그는 또한 30종이 넘는 버섯을 채집하여 이를 Unigen's PhytoLogix 컬렉션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자연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인류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의 연구 태도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혁신적인 피부 미백 성분의 개발에 그가 쏟아 부은 그 모든 노력과 공헌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Jifu 박사는 그 특유의 강력한 열정으로 이전과 다른 갈변 억제제 발견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수 회의 초기 검증 작업과 수 천 개의 샘플에 대한 길고 지루한 테스트 끝에,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던 폴리페놀 화합물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좌절하고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렸지만 Jifu박사는 끝까지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연구를 맡게 되었으며 효소 억제 실험, 화합물 격리 실험, 생화학 분석 실험 등을 모두 혼자 맡게 되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획물과 화합물을 검사한 결과 지극히 적은 양의 원료를 함유한 몇 개의 매우 활동적인 분획물을 제외하고는 히드로퀴논, 안트라퀴논, 플라보노이드 등 이미 잘 알려진 종류의 활성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연구 시점에서 Jifu 박사로 하여금 그처럼 위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를 향한 열정과 대자연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다. 그렇다 , 여러분도 답을 알듯이 Jifu 박사는 샤먼이나 다른 큰 제약 회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을 끈기로 몇 개월 동안을 매우 활성적이지만 미약한 이 분획물들을 연구하면서 보냈다. 그 결과 , 자회사 기존의 피부 미백제보다 수 천 배의 효능을 가졌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 미백 화합물보다 50배나 나은 화합물인 UP302를 발견해 내게 된다. 우리는 이 UP302가 앞으로 약용 화장품 산업에서 큰 빛을 발하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UP302의 발견은 Jifu박사에게 있어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며 그는 화학 합성이라는 천연 제품 화학자로서는 전혀 생소한 연구 분야로 뛰어들어 20개의 새로운 유도체를 만들어냈다. Jifu박사는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Texas Christian University)의 David Minter 교수와 함께 UP302의 전체 합성물을 만들어 내었으며 Abeysinghe Padmapriya 박사 및 Wenwen Ma 박사를 도와 시험 대량 생산과 UP302의 품질 관리 작업에 참여했다. 그의 다음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소매를 걷으며 UP302의 피부 미백 효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피부에 가장 먼저 발라 시험해 보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콜로라도 브룸필드에서 워싱턴의 레이시로 회사를 이전함으로써 그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다. Unigen의 많은 직원들은 그의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조개 채집과 게 낚시 담을 알고 있다. 2006년 새해에 그의 목표는 뒷 뜰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조개를 키우는 것이란다.

2006년 Unigen의 식물표본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때, Jifu박사는 겨울비를 맞으며 소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이끼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햇빛도 받지 않고 비 속에서 그토록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저 이끼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화합물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 ECONET 가족의 열정인 동시에 자연에서 좋은 것만을 인류에게 선사하겠다는 ECONET이라는 한 놀라운 기업의 성공에 밑받침이 된 열정이다.

▶ 작자는 본 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수정을 맡아준 Kathy Markham씨에게 감사드립니다.

Jifu Zhao, Ph.D. *Unigen USA*

Written by Dr. Qi Jia, Ph.D. Chief Scientific Officer Unigen USA

When an organization searches for innovation, most of the time the efforts begin with funding from capital investments to bring state of the art equipment, build a beautiful facility, and look for exotic resources. And, of course, to write a compelling marketing story.

The ups and downs of natural products research in the world over the past 20 years tell intriguing stories of corporate success and failure. We see companies like Shaman Pharmaceuticals who was the favorite star on Wall Street, who had all the capital to purchase the most exotic plant inventory, the best equipment, key scientific and technical professionals, and a focused marketing target - diabetics. However, after five years and an investment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Shaman Pharmaceutical went under, with all its dreams, hype, and thousands of plant collections.

There are many lessons we can learn from Shaman's demise, as ECONET strives toward its own goal of being the best natural products company in the world.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I believe ECONET has, which exists in few organizations, is a passion for our goals and the work itself. I would like to introduce a natural products chemist, who works at ECONET's Unigen USA subsidiary. He has the passion of loving nature and believes in the vi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His name is Dr. Jifu Zhao, Ph.D. "Jifu" to everyone who's had the pleasure of working alongside him.

Jifu was born in a small village in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Most of his childhood was spent in the country fields, helping his family grow its needed daily food. The appreciation of nature's offering is deep in his heart. His childhood dream was becoming a doctor, so he could offer much needed healthcare to his fellow villagers.

Jifu started his undergraduate education, with the focus on being a traditional medicine doctor for a local college. In four years, he learned the TCM yin-yang theory, the individual medicinal plants and hundreds of mystery combinations of 10 to 20 herbs, a healing knowledge passed down over thousands of years from Chinese ancestors. Instead of becoming a TCM physician, Jifu selected a different path. He went into one of the best natur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s to pursue his graduate study. He wanted to learn more and to know why TCM worked.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his graduation from Shenyang Pharmaceutical University, with a masters degree in analytical chemistry and then a Ph.D. in pharmaceutical chemistry. Jifu has done research in the best natural products group in Japan (Tokyo Oriental Medicine Institute, Japan), taught natural products chemistry as an associate professor at Shengyang Pharmaceutical University, tested green teas for cancer prevention at Columbia University and invented green coffee at AMC Cancer Research Center of Denver in the United States. But, Jifu found his true home at ECONET.

Jifu's passion of loving nature is so genuine that it has become part of his daily life. In Colorado, he spent many weekends and most of his personal vacation days in the Rocky Mountains, collecting different species of mushrooms. He can identify over a hundred different species of mushrooms and safely bring the fungi to his family dinner table. Jifu has collected 30 different species of mushrooms and donated them to Unigen's PhytoLogix collection.

His pa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is behind all the "CAN DO" attitude in his research. His extraordinary efforts and contributions in the discovery and invention of a revolutionary skin-whitening compound is one great example. Jifu approached the task of finding a new generation of tyrosinase inhibitor with his typical strong degree of enthusiasm. After several rounds of primary screening and tedious tests of thousands of samples, the positive hits all came from known polyphenol compounds with no commercial value.

Many other scientists involved in the project became frustrated and lost interest. However, Jifu remained focused and persistent. He took over the more laborious task of the discovery process - enzyme inhibition assay, running compound isolation and biochemical assay, all by himself, month after month. After screening countless fractions and compounds, the positive hits remained as well-known types of actives, such as hydroquinons, anthraquinones and flavonoids, except for a couple of very active fractions that contained very little amounts of materials.

At this critical point of the research project, only a passion for pursuing the best and a belief in nature's ability to provide the wonders in Jifu's heart could lead him past the twilight zone to achieve the greatest goal. Yes, you know the answer. Jifu spent a couple of months working on those very actives but minor fractions, with a persistence that probably never existed at Shaman and other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He discovered UP302, a compound that is a thousand times more potent than our current skin-whitener, and fifty-fold better than the leading benchmark skin-whitening compound in the world. We believe that UP302 will be a shining star in the cosmeceutical industry in coming years.

Discovery of UP302, with its unsurpassed potential, was just the beginning for the energetic chemist. Jifu jumped into chemical synthesis, a totally different research field for a natural product chemist, and made more than 20 new derivatives. He worked with Professor David Minter at Texas Christian University for the total synthesis of UP302 and helped Dr. Abeysinghe Padmapriya and Dr. Wenwen Ma in pilot scal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of this compound. When I asked him what was his next plan on UP302, he rolled up his sleeve and told me that he wanted to be the first person to put the compound on his arms for skin-whitening efficacy study.

Moving from Broomfield, CO to Lacey, WA with the company brought much happiness to Jifu's life. Many of Unigen's employees have heard his funny, yet touching, clam digging and crab fishing stories. His 2006 New Year's resolution is to build a pond behind his home, filled with seawater to grow fresh clams.

When we discussed Unigen's plant collection goals for 2006, Jifu pointed to the moss on the evergreen trees in the winter rain and said with enthusiasm: *"That moss might offer some magical compounds, with its amazing growth rate under the rains without sun."* This is the passion of one Econetian and the pa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is the backbone behind the success of this incredible organization.

▶ The author is indebted to Ms. Kathy Markham for her valuable input and revision of this article.

사라, 수상을 축하합니다!

Employee of the Quarter
사라 월

스코티 쿠푸스의 귀여운 아들이 표지 모델로 등장했던 에코넷 웨이 2005년 8월호에는 6명의 여인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세워 E-C-O-N-E-T 글씨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었다. 사진 설명을 보자 친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미시, 줄리아, 바비, 사란, 션. 이름을 읽어나가던 중 나는 사진을 다시 올려다봤다. "잠깐….사진에는 6명이 있는데…."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랫줄 가운데에 있던 여인 1명의 이름이 사진 설명에는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사라 월

이름이 빠졌던 비운의 주인공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오아시스 회계팀 소속 직원인 사라 월이다. 물론 사라는 자신의 이름이 사진에서 누락됐다고 크게 개의치 않았을 테고, 또한 "피라미드 팀"의 다른 팀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사진이 그토록 멋지게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현재 사라의 직장내 타이틀에 따르면 그녀는 지불 계정과 급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탠이 경비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브라이슨이 타임카드 제출하는 것을 깜박하면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며, 스티븐이 장거리 출장을 떠나기 전에 출장비 지급 수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나머지 일들도 처리하고 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회계 관련 질문 뿐만 아니라 창고안에 문이 몇 개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까지도 (물론 이에 대한 답은 사라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됨)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대답하려고 노력한다. 사라는 간단한 질문 뿐만 아니라 가장 까다롭고 힘든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답해준다.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공손한 이 여인이 지난 달에 드디어 또 하나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ECONET WEST가 선정하는 분기별 모범 직원으로 뽑힌 것이다. 수상하던 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매일 보고 지내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Lacey 오피스에서는 매 Quarter마다 직원들의 추천을 받고 Executive들의 동의를 거쳐 한명을 Employee of Quarter로 뽑아 상금을 시상합니다. 이번 호에는 2005년 마지막 Quarter에 Employee of Quarter로 뽑힌 Sarah Wall에 대한 글로 Sarah의 Manager인 Todd Shumsky(Oasis, Accounting Manager)가 썼습니다.

CONGRATULATIONS SARAH!

Employee of the Quarter
Sarah Wall

In the August 2005 Econet Way (the edition with Scotty Kufus' Beautiful Son on the cover) there was a picture of six ladies forming a human pyramid with the letters E-C-O-N-E-T. Reading the caption I read the names familiar to me,… Missy, Julia, Bobby, Sarann, and Sean. Then I stopped and looked up. "Wait a minute", I said to myself, "I just saw six ladies in this picture". The lady in the bottom row in the middle was missing her name in the caption…
SARAH WALL

You see, the lady whose name that was missing is a part of my own Oasis Lifesciences Accounting team. I am certain that Sarah could not care less that her name was left off the picture. I am also sure Sarah was happy that the others on the "Pyramid team" were recognized and that the group picture turned out so nice.

Sarah's "job title" says that she processes Accounts Payable and Payroll accounting. However, she knows her "real" job is helping Stan with his expense report, calling Bryson when he forgets to turn in his timecard, or making sure that Stephen gets his reimbursement check before his cross-country trip. No one ever had to ask her but she know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friendly, courteous, and helpful to everybody that enters her office. She also knows and respects an Accounting question when it shows up at her desk, or a question about how many doors there are in the Warehouse (which I assume she does not know.) Sarah is kind enough to share her smile with the easiest and most difficult question-giver.

This lady who is friendly and courteous to everybody, final got her "caption" last month when she was awarded the ECONET WEST EMPLOYEE OF THE QUARTER. I am sure that the smile on her face the day of the award was the same smile I am fortunate enough to see on a daily basis.

Based on employee recommendations and executive accord, Lacey ECONET Offices select one employee as Employee of the Quarter and awards him or her a prize. The following is an article about Sarah Wall, who was named Employee of the Quarter for the last quarter of 2005. The article was written by Sarah's manager, Todd Shumsky (Accounting Manager, Oasis).

이연호 회장님 옛 추억의 발전소

성수동 '한서 칼국수'

글–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오경아 대리

성수동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20년 전통의 이 칼국수집의 비밀은 사골(한우)로 우려낸 국물에 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부드러운 면발에 호박 송송 썰어 얹어낸 옛날 어머니의 손끝에서 우러나온 정성이 깃든 칼국수로 마늘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강한 맛의 김치 겉절이가 반찬의 전부지만, 푸짐하게 한 가득 내오는 칼국수만 보면 흐뭇해지는 곳이다. 겨울철 축축한 몸과 마음을 보듬어 줄 뜨거운 국물을 원한다면, 여기 소문난 내공의 칼국수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떨지 권한다.

처음 92년 7월 고등학교 시절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면접시험을 보러 왔을 때부터 나는 이곳 성수동과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성수동은 이제 나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내가 한창 청춘이었던 시절, 성수동에 대한 나의 추억과 순진했던 내 일면을 회상하게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서 칼국수' 집이다.

언뜻 보면 조그맣고 세련되지 않은 이 식당은, 내가 입사할 때부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주인 아주머니도 그대로이고 메뉴도 그렇고, 맛 또한 그렇다. 점심시간은 항상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줄을 잇고 이 식당에 오면 항상 옛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처음에 이곳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내가 칼국수 맛을 잘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 식구들이 항상 점심시간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돌아가신 이연호 회장님께서는 이 식당의 칼국수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이 식당에 오면 회장님을 뵐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입사 동기들은 일부러 여기로 와서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공짜 칼국수를 얻어 먹곤 했다. 그럴 때면 회장님께서는 "그래 오냐, 니들 왔노? 추운데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가그라" 하시며 인자한 웃음을 '껄껄' 웃으셨다. 지금은 여기에 찾아와도 회장님 모습을 뵐 수는 없지만, 칼국수집 아주머니 얼굴을 볼 때 면 회장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여기 칼국수집을 성수동 '맛집'으로 취재 왔어요."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는 창업 초기를 회상하며 회장님 말씀부터 꺼내셨다. "이연호 회장님께서 94년도에 성수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회사를 이전하실 때, 우리 칼국수집도 같이 가자고 하실 정도로 우리 칼국수를 좋아하셨어요. 그 때는 가게 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아무 것도 몰라서 따라갈 엄두를 못냈죠. 아! 나도 회장님을 정말 다시 한번 뵙고 싶네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아니면 오래된 이 칼국수 맛에 중독이 된 것인지는 모르나 나에게는 여기 한서 칼국수가 참 맛이 있다. 신입사원이 들어 오거나 친구들이 찾아오면 나는 자연스럽게 여기 칼국수 집으로 데려와 유서 깊은 칼국수 맛을 보여주곤 한다.

Kalguksu + Kimchi

A Place Filled with Memories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Hanseo Kalguksu in Seongsu-dong, Seoul

Written by Gyeongah Oh, Assistant Manager,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The key to the fantastic taste of the noodle soup at Hanseo Kalguksu, the best kalguksu (hand-made noodles in broth) place in the Seongsu-dong area with a twenty-year tradition, is its broth boiled from the shank of Korean beef. Tender noodles made from thin flour dough are garnished with fine slices of squash. It delivers the homemade taste we used to enjoy in the old days. Although the only side dish is spicy kimchi with plenty of garlic and chili powder, you will be pleased with the generous portion of kalguksu. If you want a bowl of warm soup to reenergize your body and mind weary in winter, how about stopping by this famous kalguksu place?

My attachment to this neighborhood began when I first came to Seongsu-dong in July 1992 for a job interview, still in my school uniform and my hair bobbed. Seongsu-dong is virtually a second home to me. There is one place that brings forth my memories of Seongsu-dong and makes me look back upon my innocent days when I was still at the prime of my youth: Hanseo Kalguksu.

At first glance, the place appears small and far from classy or sophisticated. Nothing about this place has changed from the day I first began working at Namyang. The woman who owns the place, the menu and the taste are all the same. At lunchtime, the crowded place always has a long waiting line. Whenever I come here, I feel like I have returned to the good old days.

I first became attached to this place not necessarily because I have a special fondness for kalguksu, but because I always found some Namyang people here at lunchtime. Late Chairman Yunho Lee in particular was a big fan of the kalguksu here. When you come here, you would often run into the chairman. In fact, my colleagues and I would come her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a free lunch from him. When we said, "Hello, Mr. Chairman," he would smile kindly and affectionately and say "Hello, girls! It's cold outside. Help yourself to a bowl of hot noodles." Although I can no longer run into the late chairman today, when I see the face of the owner of the place, thoughts of the late chairman flash through my mind.

When I said to the owner, "I came here today to introduce this place as a famous restaurant of Seongsu-dong," she reflected on the early days of her business and began talking about the late chairman. "When the company relocated from Seongsu-dong to Yeoksam-dong south of the Han River in 1994, the late Chairman Lee suggested we move as well. He was such a big fan of our *kalguksu*… It had been only a few years since we opened this place and I didn't know a thing about business. I didn't dare move. Ah… really miss him."

Maybe because I'm older now or because I'm addicted to the taste of this place's kalguksu, their soup tastes truly wonderful to me. Whenever there are new hires in the company or when my friends drop by, I automatically take them to this place and let them enjoy the taste of tradition.

새하얀 설원을 달리는 겨울 스포츠를 다 같이 즐겨보아요!

글– ㈜남양 생산기술팀 전영숙 기자

겨울은 4계절 중 가장 추운 계절이다. 추운 날씨 때문에 주말이 되어도 집안에 틀어박혀 TV와 비디오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과 열정의 대명사 에코네시안들이여! 밖으로 나가 설원의 자연 속에서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와 스노우 보드를 즐겨보자. 답답했던 마음과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감을 느끼며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솟아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키와 보드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2003년 결성된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 동아리도 회사의 SVC 교육 후에 잠시 주변에 있는 스키장에서 배우고 난 뒤 금세 스키의 재미에 빠져 버렸고, 일부는 밤새 스키를 타기도 했다. 그 당시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스키와 보드는 정말 한 번 배우기 시작하면 그 묘미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쯤 하면 모두들 스키를 타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으리라 그러나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가야 한다. 스키를 배우고 싶은 에코네시안들은 반드시 전문 인스트럭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자. 스키를 처음 배울 때에는 슬로프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끄러져 보고 넘어져 보고 하면서 느낌을 익혀야 한다. 한동안 이러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잊혀지고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마련이다.

눈 위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감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는 요령을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키나 보드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하여 큰 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자. 손목과 발목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기타 전신의 긴장을 풀고 유연하게 하여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스키를 탈 때는 적절한 장비와 피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키 장비는 여러 가지 안전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스키, 부츠, 바인딩을 선택하고 조절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장은 대충 선택하기 쉬운데, 전용스키복을 입는 것이 좋다. 전용 스키복은 디자인도 설원과 잘 어울리겠지만 무엇보다 스키를 탈 때의 안전사고와 동상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가죽장갑이나 털장갑을 사용하면 얼룩이 지거나 쉽게 동상을 입을 수도 있다. 눈부신 설원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은 매우 강렬하므로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여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스키는 두 개의 플레이트(발판)로 타게 되며 발판이 길수록 컨트롤이 어렵고 짧은 수록 안정성이 높다. 반면에 보드는

양발이 하나의 데크를 움직이는 것으로 스키보다는 활동성에 약간 제한이 있다. 스노우 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스키를 즐기는 인구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매니아 층이 많은 젊음이의 스포츠이다.
스키와 스노우 보드는 운동량이 풍부한 온몸운동으로 하체와 허리기능 강화에 좋으며 심폐기능과 균형감각, 순발력을 기르는데 더 없이 좋은 스포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스포츠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연 경사면을 따라 눈을 헤치고 활강할 때 느껴는 다이나믹함이 끊임 없이 불러일으키는 살아있음의 재확인시켜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드넓은 용평 스키장에서 온몸으로 뒹굴다

근래 들어 남양은 겨울만 되면 하얀 설원을 휘젓고 다니는 꿈을 꾼다. 올해는 지난 1월 6일 익스트림의 첫 나들이가 용평 스키장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15명의 소수인원이지만 모두 들뜬 마음으로 드넓은 용평 스키장을 떠올리며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1박1일의 겨울 여행을 떠났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숙소에서 도착한 우리는 그리길지도 짧지도 않은 다과회를 마친 후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2006년 시즌에는 첫 스키 여행이라 부푼 기대감에 쉽게 잠이 오지 않은 건 나뿐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늦은 잠을 청하였다

간단히 아침식사를 마친 우리는 드디어 용평 스키장에 발을 디디었다. 새하얗게 드넓은 스키장에는 빽빽하게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으나 우리의 눈에는 그냥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스키는 스키대로 보드는 보드대로 짝을 지어 스키장을 올랐다. 장대하게 펼쳐진 눈 세상을 보니 더욱더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스키장에 처음 온 멤버들도 있어 초보자 코스에서 기본자세와 안전요령을 마스터한 후 바로 용평 스키장의 최고난이도인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로 오르는 곤도라에 몸을 실었다. 곤도라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겨울연가의 촬영지인지라 많은 이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도 배용준과 최지우의 사진 옆에서 한 컷씩 기념 촬영을 했다.

굽이굽이 높고 낮고 평평한 길을 따라 힘들게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를 내려오며 틈틈이 쉬었지만 생각보다 힘든 건 사실이었다. 올 시즌 중 오늘이 손님이 제일 많았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땐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우리의 흥분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추운 날씨에 언 손과 발을 동동 구르며 뒹글던 용평 스키장을 뒤로하며 우리는 오후 4시 반을 끝으로 다음 달을 기약하며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Let's get out and enjoy winter sports,
dashing down snow-covered slopes.

By Reporter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 Namyang Company / Korea

Of all the seasons, winter is the coldest. Because of the chilly weather, we tend to shut ourselves in our homes and kill time by watching TV or playing video games. Remember, however, that we are ECONETIANs, who are known for their vigorous energy and passion! Let's get out in the snowy outdoors and enjoy skiing and snowboarding, the kings of winter sports. You will feel the oppression and stress melt away immediately and experience a burst of new passion for life as well as work.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being a first-timer in skiing or snowboarding. Members of the Extreme Sports Club, founded in 2003, quickly dived into the excitement of skiing after undergoing SVC training offered by the company and trying it out briefly at a nearby ski slope. Some skied throughout the night. In fact, the participants at that time are the main founding members of the Extreme Sports Club. Once you learn how to ski or snowboard, it is really difficult to escape the call of their excitement.

By now, I'm sure everybody is filled with the desire to try skiing. However,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starts with but a single step. ECONETIANs who want to learn how to ski should take lessons from a professional instructor. Novice skiers should walk up and down the slope, glide down and fall to get a feel for the hill. While doing so, you will forget about the cold and find yourself all warmed up.

In addition to familiarizing yourself with moving around on snow, you must learn and practice how to safely enjoy skiing. Before skiing or snowboarding, you should always warm up first to protect yourself from serious injury. Stretching the wrists and ankles is essential. You need to relax and loosen up other parts of your body in order to minimize the likelihood of an accident.

When skiing, it is recommended you dress appropriately and use proper gear. Since various safety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ski equipment, you should get professional advice when selecting and adjusting skis, boots and bindings. Moreover, you are likely to overlook your clothes, but a ski suit is strongly recommended. You will not only look great on the slopes, but it is also very useful for keeping you safe and preventing frostbite. Regular leather or wool gloves are easily stained by the snow and are not effective at protecting you from frostbite. Since ultraviolet rays reflected by the glaring white snow are very intense, you must wear goggles to protect your eyes.

When skiing, you are riding on a pair of plates. Longer skis are more difficult to control, while shorter ones are more stable. With snowboarding, however, you place both feet on a single board, which offers more limited maneuverability than skis. Although snowboarding is not as popular as skiing, it is a youth sport with a large group of enthusiasts.

Both skiing and snowboarding are physically demanding on the entire body. They are particularly effective at strengthening the lower body and midsection. They are the perfect sports for strengthening the heart and lungs and developing balance and reflexes. Above all, it is the rush of tearing through snow down natural slopes that attracts people to these sports. The sensation is a constant reminder that you're very much alive.

Relishing the vast expanse of Yongpyeong Ski Resort

Every winter in recent years, Namyang dreams of gliding down white snow-covered hills. This year's first Extreme outing took place at Yongpyeong Ski Resort on January 6. Although it was a small group consisting of just 15 members, all of us were excited at the thought of Yongpyeong Ski Resort. Appeasing our hunger with gimbap (rice rolled in dried laver), we set out on our overnight winter journey.

It was already after ten o'clock at night when we checked into our hotel. After a not-too-long but not-too-short coffee and snack party, we went to bed. Thinking that I would not be the only one having a sleepless night because of the

excitement of the first ski trip in the 2006 season, I struggled to fall asleep late that night.

After a light breakfast, we finally went to Yongpyeong Ski Resort. The ski resort's vast snowy expanse was crowded with people. Nonetheless, we found it just as picturesque. After checking our gear, the skiers and the snowboarders paired up with amongst themselves and hit the slopes. The magnificent sight of a snow-covered world was more tempting than ever.

We had a few first-timers on the ski slope, and we therefore covered the basics and safety rules in a beginner's course. We then climbed aboard a gondola up Rainbow Paradise, the most difficult trail at Yongpyeong Ski Resort. The peak the gondola takes you to is where the popular Korean drama Winter Love Story was filmed. Many people were admiring the place. Of course, we also took a souvenir photo of us standing beside the photographs of Yong-jun Bae and Jiwoo Choi, the stars of the drama.

We carefully skied down Rainbow Paradise along meandering, steep, gentle and smooth slopes. Although we took breaks during our descent, it was more difficult than we had anticipated. We all sighed at the news from an employee there that it was the busiest day on the slope this season. Nevertheless, it was not enough to quell our excitement. Around four-thirty in the afternoon, we left behind Yongpyeong Ski Resort where we enjoyed ourselves despite feet and hands chilled from the cold weather, boarded a bus home and vowed to return next month.

Lacey Holiday Party

12월 9일 금요일 오후 Olympia 의 Red Lion Hotel 에서는 Lacey Econet Company들의 Holiday Party가 있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해를 마감하는 안도감과 크리스마스가 주는 흥분이 더해져 파티장 안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 흘렀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Qi 박사의 ECONET Award 수상이라고 하겠다. 이병훈 사장님이 축사 후, 수상자로 Qi 박사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식장안은 왠만한 콘서트장을 방불하는 휘파람과 환호성, 기립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다. Qi박사는 Univestin개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극비리에 준비된 그의 Dream Car, 검정 BMW X5를 그 자리에서 전달받았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에코넷 웨스트의 화려한 모습이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미소는 옆 사람에 대한 전염성도 강하고, 아마도 일년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The Glamorous Side of ECONET West celebratedthe holiday season in style.
The smiles are contagious and will no doubt last the whole year through.

Lacey Holiday Party

On December 9th, there was a holiday party at the Red Lion Inn in Olympia for the Lacey ECONET companies. The reception room was filled with a sense of relief as a hectic year came to an end and also filled with holiday excitement. The highlight of the event was the presentation of the ECONET Award to Dr. Qi Jia. When Bill Lee named Dr. Qi Jia as the winner, there were shouts of joy, whistles, and thunderous applause as a standing ovation swept through the room. It closely resembled a superstar concert. Dr. Qi Jia was awarded a black BMW X5, his dream car, in appreciation of his dedication to the development of Univestin. This special award was brought to the site under the strictest secrecy.

*치 지아 박사와 그의 부인 **(Qi and wife)***

2006년 3사 시무식을 에코넷센터에서

에코넷센터가 생긴이래 국내 3사 임직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006년 1월 2일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SVC 교육 우수상, 에코넷웨이 우수기자상을 시상하고, 에코넷 웨이 기자 13명에 대한 기자 임명장도 수여되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SVC 교육우수상
남양 정봉수, 남양알로에 신인수, 유니젠 오미선, 에코넷기업본부 유병용
ECONET WAY 우수기자상
남양알로에 박정아 기자, 유니베라 이세현 기자

또한 각 사별로 승진자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과 함께 이병훈 대표이사의 신년사와 더불어 임직원 상호간의 악수 릴레이에 이어 즐거운 오찬시간을 가졌다.

2006 Opening Ceremony Held at the ECONET Center for the Three Korean Compani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aunch of the ECONET Center, the staff of the three Korean companies gathered together and held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New Year in a congenial atmosphere on January 2, 2006. At the ceremony, SVC Training Awards and ECONET WAY Best Reporter Awards were presented and certificates of appointment were given to 13 ECONET WAY reporters. Here are the winners of the awards:

SVC Training Award
Bongsu Cheong (NY), Insu Shin (NYA), Miseon Oh (Unigen Korea) and Byeongyong Yoo (ECC)
ECONET WAY Best Reporter Award
Jeongah Park (NYA) and Sean Lee (Univera)

In addition, ECONETIANs who had been promoted received new appointment letters, and Bill Lee delivered a New Year's address. A round of handshakes among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was followed by a sumptuous lunch.

㈜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1 해남도 영업국 사장 세미나

남양알로에 영업국 사장 세미나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중국 해남도에서 열려 변화되는 남양알로에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각지에서 참가한 영업국 사장들은 글로벌 직접 판매회사의 구심점이 될 새 기업CI 'UNIVERA'와 새롭게 시작되는 천연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로운 30년의 미래 역시 밝고 위대한 행보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세미나 실시 후에는 해남도 농장과 사무실 견학을 실시하여 하이난 알로콥, 하이난 남양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간 굳건한 협력을 다짐했다.

Sales Bureau Agency Seminar Held on Hainan Island

A Namyang Aloe Sales Bureau Agency Seminar was held on Hainan Island from January 5 through 9 to share the renewed vision for the future of Namyang Aloe. The heads of agencies attending from all over Korea were briefed on UNIVERA, a new corporate CI that will serve as a focal point for the new global direct selling company and natural product business to be launched. They felt confident that the next thirty years would be yet another bright period of tremendous success. After the seminar, participants visited the plantation and offices on Hainan Island and offered encouragement to the staff of Hainan Aloecorp and Hainan Namyang and pledged full cooperation for the creation of synergy.

2 NSM 닫고, NAIS 열리고

2006년 1월 1일 부로 대리점과 본사의 정보 교류의 바탕이 될 NAIS 시대가 열렸다. 초창기 인트라넷 시스템이었던 NSM은 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200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NAIS 시대가 열림에 따라 남양알로에 가족들이 애정을 나누던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 탄생한다. NAIS는 대리점의 주문처리뿐 아니라, 대리점 자체 관리 기능, 고객관리 기능까지 갖추어 대리점 사장님들의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남양알로에 가족들의 삶의 애깃거리를 더해가며 향후의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한편, NAIS는 Namyang Alo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이다

NSM Comes to a Close and NAIS Opens

As of January 1, 2006, the era of NAIS (Namyang Aloe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be the basis for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agencies and the head office, is open. NSM, an Intranet system used in the early days, was officially shut down on December 31, 2005 after fulfilling its historic mission.
With the launch of NAIS, the space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s among Namyang Aloe families has been fully renovated. With its function of processing orders placed by agencies and managing agencies themselves as well as customers, NAIS will be able to more effectively support the needs of agencies. Going forward, it will archive the history of new developments, including the life story of Namyang Aloe families.

3 제 3회 수요음악회와 가족 동반 송년회

12월 21일 에코넷 센터 NABA교육장에서 제 3회 수요음악회가 성애원 어린이, 성동구민, 그리고 에코넷 가족이 함께 모인 에코넷 센터 NABA 교육장에서 지난 12월 21일 진행되었다. 성동구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아카펠라 그

룹 메이트리의 공연 도중 산타 클로스가 등장하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음악회가 끝난 뒤 1층 로비에서는 성동구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사진을 촬영하고 즉석 인화된 사진을 선물로 전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뤄진 행사를 통해 남양알로에가 지역사회와 완전히 하나되어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뒤 사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송년모임으로 남양알로에 가족들의 결속을 다짐했다.

The 3rd Wednesday Music Concert and Year-End Party for Families

On December 21, 2005, the 3rd Wednesday Music Concert was held in the ECONET Center NABA Training Room, attended by children from Seongaewon orphanage, residents of the Seongdong district and ECONET families. The concert, which opened with a performance by the Seongdong District Children's Chorus, reached its climax when Santa Claus showed up in the middle of a performance by MayTree, an acapella group, and handed out presents to children. After the concert, a Christmas party was held in the lobby on the first floor to which the residents and children were invited as well. The excitement continued throughout the party as Polaroid pictures were taken with Santa Claus and handed out to the children. The event once again confirmed that Namyang Aloe is becoming one with the local community.
After the Christmas party ended, the staff and their family members gathered for a year-end party at which they played some games and pledged their solidarity.

4 제안제도 (Let's) 연말 시상

남양알로에의 제안 제도인 Lets의 시상식이 종무식에 맞추어 시행되었다. 최우수 제안상에 고객지원팀 정현정 주임, 최다 제안상에 교육기획팀 송은주 주임 등 개인상 4명과 최다 제안팀에 참여율 75%를 기록한 대구경북팀, 최다 실행팀에 BM팀 등 조직시상 14명이 있었다.
2005년도 Let's 제도는 전체 93건의 제안이 이루어져, 실행율 56.0%의 실적을 보였다. 에코넷센터에 대한 홍보안, 제품 품질 개선 및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대리점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제안을 통해 남양알로에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 제도는 2003년 이후로 시행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신제안 제도로 개선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Year-End Awards for "Let's"

An award ceremony for "Let's," an idea proposal system within Namyang Aloe, was held along with the official closing of the offices for the year. In total, four individual awards were presented, including best idea proposal award to Hyunjeong Jeong (Supervisor, Customer Support Team) and most idea proposals award to Eunju Song (Supervisor, Training Planning Team), and 14 group awards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most idea proposals team award to the Daegu Gyeongbuk Team (75% participation rate) and the most ideas implemented team award to the BM Team.
In 2005, 93 ideas were proposed through the Let's system, and 56.0% of them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 various proposals, including PR ideas for the ECONET Center, product quality improvement and new product ideas and agency service improvement ideas, it played a crucial role in innovation at Namyang Aloe.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3 and will be upgraded to a new system in 2006.

5 체지방 조절제품 메타블럭 체험수기 공모전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에 꼭 필요한 체지방 조절제품인 메타블럭의 우수 사례 모집과 판매 노하우 획득을 위한 체험수기 공모전이 진행되어 총 88건의 수기가 접수되었다. 대리점 사장 부문에 성공상 2명, 설계사 부문에 최우수 1명(신안웰빙대리점 정춘미)을 비롯한 총 71명에게 시상품이 주어졌다.
공모전에 당첨된 내용은 대리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A Contest for Personal Experiences with MetaBlock, a Product for Controlling Body Fat

An essay contest for personal experiences using MetaBlock, a body fat controlling product that is a must for a healthy lifestyle for today's people, was held to collect success stories and sales know-how. A total of 88 essays were received, 71 of which garnered awards, including two success stories in the agency category and one top award (Chunmi Jeong, Sinan Well-Being Agency) in the life planner category.
Award-winning essays will be shared and used by agencies in the field.

6 남양알로에, 기업 메세나 활동

남양알로에는 극단 산울림의 20주년 기념 연극〈영영이별, 영이별〉 후원을 통해 기업메세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기업 메세나 활동이란 기업이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 등의 분야에 대해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후원하고 있는 연극 〈영영이별, 영이별〉은 연극계의 국민배우로 인정받는 윤석화가 주연을 맡아 청계천 영도교에서 영원히 헤어진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달픈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올해 2월 19일까지 상영할 예정이다.

Namyang Aloe Active in Corporate Support

By sponsoring Yeongyeong Ebyeol, Yeong Ebyoel (Eternal Farewell), a play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atrical company Sanwoollim, Namyang Aloe is actively taking part in "mecenat," which refers to the social and humanitarian support of arts, culture, science and sports by businesses. Yeongyeong Ebyeol, Yeong Ebyoel is a heartbreaking love story about King Danjong and Queen Jeongsun, who were separated forever at Yeongdo Bridge on Cheonggye Stream. The play, starring celebrated Korean actress Seok-hwa Yoon, will be staged until February 19.

7 남양931 히트 상품 선정

남양알로에의 남양931이 식품환경신문이 뽑음 '건강기능식품' 부문 2005년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건강식품 전문지가 업계 내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남양931은 세포 성장촉진 기능으로 특허를 받은 NY931(특허 제169805호)이 주 성분인 건강기능식품이다. 또한 타우린과 메타카로틴, 효모 추출물, 밀크시슬 등 인체에 필요한 각종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알로에의 면역력 증강 기능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Namyang 931 Named Hit Product

Namyang Aloe's Namyang 931 was selected by the Food and Environment News as the hit product of 2005 in the health supplement categor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best product in the industry by a newspaper specializing in

alimentary products and supplements. Namyang 931 is a health supplement product whose main ingredient is NY931, which is patented for its cell growth stimulation function (patent no. 169805). It also contains various nutrients vital to the human body, such as taurine, beta-carotene, yeast extract and milk thistle. Together with aloe's immunity boosting function, they help you enjoy a healthy and active life.

㈜남양 / Namyang Company

8 2005년 NI-6((Namyang Innovation 6-Sigma)분임조 발표회

2005 NI-6(Namyang Innovation 6-Sigma) 분임조 발표회가 지난 12월 23일 개최되어 2005년에 거둔 우수개선사례와 활동을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11개 분임조의 우수사례가 발표된 가운데 개미분임조와 독수리 분임조는 최우수 분임조와 최우수 구호조 2개 영역에 모두 중복 선정되어 갈채를 받았다. 분임조 활동은 직원의 품질 개선마인드 향상과 개선 실천력 증대를 통하여 생산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생산역량 강화를 통하여 품질향상과 생산 Process 개선활동으로 원가절감 실현을 목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The 2005 NI-6 Sub-Group Presentation

On December 23, the 2005 NI-6 (Namyang Innovation 6-Sigma) sub-group presentation was held to share best improvement practices and activities with all employees. Best practices were presented by 11 sub-groups. Sub-groups "Ants"

and "Eagles," in particular, were selected in both the best sub-group and best rescue sub-group categories. Sub-group activities are initiated with the goal of enhancing production capabilities by improving employee attitudes toward quality improvement, increasing efforts toward improvement and cost savings through quality improvement and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

9 2005년 ㈜남양 조직개편

직무 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 재편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를 위해 ㈜남양은 200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양 조직개편

- 생산본부
  연구실 ⇨ 연구개발실 / 품질혁신팀 신설
- 경영지원본부
  구매팀 ⇨ SCM팀
  영업팀 ⇨ 기술영업팀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팀

Namyang Reorganized in 2005

In order to streamline the organization based on a role analysis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business processes, Namyang underwent reorganization effective January 1, 2006. Details are as follows.

◈ Namyang Reorganization

- Production Headquarters
  Research Center ⇨ R&D Center / Quality Innovation Team newly established

- Management Support Headquarters
  Purchasing Team ⇨ SCM Team
  Sales Team ⇨ Technology Sales Team
  Management Support Team ⇨ Management Planning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0 ㈜유니젠-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배초향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난 12월20일 ㈜ 유니젠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배초향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형규 박사팀은 배초향의 추출물로부터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 동맥경화를 현저히 개선시키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 기술을 유니젠과 이전 계약 체결을 통해 기능성 식품 소재 및 천연물 신약개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당사는 프론티어21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긴밀한 연구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번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향후 공동연구 및 협조를 더욱 강화 하기로 하였다.

Unigen Korea and KRIBB sign a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on Purple Giant Hyssop

Unigen Korea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signed a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on purple giant hyssop on December 20, 2005. A team at KRIBB led by Dr. Hyunggyu Lee confirmed that extract of purple giant hyssop impedes the accumulation of cholesterol and significantly improves arteriosclerosis. In signing a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Unigen Korea, his team plans to develop materials for functional supplements and new natural product-based medicines.
Unigen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Frontier 21 Indigenous Plant-base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as a research institution and maintained close cooperation in research with KRIBB. With the recently signed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joint research and cooperative efforts between the two parties will be further enhanced.

11 Natural Products EXPO Asia, Nutracon China 참가

유니젠은 11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Natural Products Expo Asia를 통해 주력 제품인 Univestin, Univestin-K, UniBEX 등을 비롯한 다수의 천연물 신소재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 행사를 통해 유니젠은 총 56개 기업과 상담을 갖고 이중 주요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천연물 학술대회 Nutracon China에 유니젠 한국의 생명과학 연구소장인 우성식 총괄상무가 초청연사로 참가해 한국 기능성식품 현황에 대해 발표 하였다.

Participation in Natural Products Expo Asia and Nutracon China

Unigen Korea introduced a number of new natural products, including key products Univestin, Univestin-K and UniBEX, at Natural Products Expo Asia held in Hong Kong from November 30 through December 2, and garnered great interest and a positive response from participants. During the event, Unigen Korea met with 56 companies and is continuing negotiations with several major corporations.

In addition, Director of Unigen Korea's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Seong-sik Woo was invited to speak at Nutracon China, an academic natural product conference held in Shanghai, and gave a present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functional supplements in Korea.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2 러시아 유니젠 연말연시 연휴 10일

올해 러시아 연말연시 연휴가 2005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러시아의 연말연시 연휴가 긴 것은 첫째, 러시아의 광범위한 영토에 기인 한다. 연말연시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려면 열차로 왕복 2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둘째로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의 월력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에 따라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이 러시아의 크리스마스이다. 따라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가 이어지는 관계로 러시아의 연말연시 연휴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Unigen Russia Enjoys a 10-Day Holiday

The year-end holiday spanned December 31, 2005 through January 9, 2006 in Russia. The long holiday is attributable first to the vastness of the country. A train trip from Vladivostok to visit a family member living in Moscow and back takes over two weeks. Also, in Russia, Christmas is celebrated according to the Russian Orthodox calendar; Christmas in Russia is not December 25 but January 7. As Christmas comes after New Year's Day, Russia enjoys an extended year-end holiday.

신입사원 / New Hire

▲ 안성민(남양알로에)/ 경인영업팀 사원
Seongmin Ahn (Namyang Aloe)/ Gyeongin Sales Team

▲ 신흥섭(남양)/ 품질혁신팀 차장
Heungseob Shin (Namyang)/ Deputy Senior Manager, Quality Innovation Team

▲ 박병진(남양)/ 생산기술팀 사원
Byeongjin Park (Namyang)/ Production Technology Team

▲ 유재호(유니젠)/ 생산팀 팀장
Jaeho Yoo (Unigen)/ Production Team Leader

▲ 최운선(유니젠)/ 생리활성검증팀
Wonseon Choi (Unigen)/ Bioassay & Discovery Team

▲ 피터 헤퍼만(알로콥)/ CEO
Peter Hafermann (Aloecorp)/ CEO

▲ 샤논 존스(알로콥)/ 선임 회계 담당
Shannon Jones (Aloecorp)/ Senior Accountant

▲ 신티아 로스나우(알로콥)/ 회계 담당
Cynthia Rosenow (Aloecorp)/ Staff Accountant

▲ Daniel Vazguez(Aloecorp)/ Production Proc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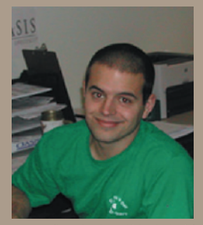
▲ 메리 토마스(힐탑 가든)/ 가든 매니저
Mary Thomas/ Garden Manager for Hilltop Gardens

▲ 리차드 라즈가이티스(오아시스)/ 영업 마케팅 EVP
Richard Razgaitis(Oasis)/ EVP, Sales & Marketing

▲ 보니 앤더슨(오아시스)/ CSR I
Bonnie Anderson(Oasis)/ CSR I

▲ 대니얼 베르츠(오아시스)/ 물류보관 담당
Daniel Betz(Oasis)/ Warehouse Personnel

▲ 프레드릭 쿡(오아시스)/ CSR I
Frederick Cook(Oasis)/ CSR I



▲ 그레고리 가르딘(오아시스)/ 물류보관 담당
Gregory Gardin(Oasis)/ Warehouse Personnel

▲ 티토 나푸티(오아시스)/ 물류보관 담당
Tito Naputi(Oasis / Warehouse Personnel

▲ 캐트릴 불록(오아시스)/ CSR I
Kathleen Bullock(Oasis)/ CSR I

New Hire

승진 & 부서이동 소개/ *Promotions & Transfers*

승진자 & 부서이동 소개 / Promotions & Transfers A list of ECONETIANS promoted to manager or higher

◀ 공승식(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재무팀 팀장/과장 ⇨ 팀장/차장
Seungsik Gong (Namyang) ECONET Corporate Office Finance Team Leader/Manager ⇨ Team Leader/Deputy Senior Manager

◀ 최규남(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자산팀 과장 ⇨ 차장
Kyunam Choi (Namyang) ECONET Corporate Office Asset Team Manager ⇨ Deputy Senior Manager

◀ 최정환(남양)
구매팀 대리 ⇨ SCM팀 과장
Jeonghwan Choi (Namyang) Purchase Team Assistant Manager ⇨ SCM Team Manager

◀ 김희수(남양알로에)
영업기획팀 팀장/과장 ⇨ 팀장/차장
Heesoo Kim (Namyang Aloe) Sales Planning Team Leader/Manager ⇨ Team Leader/Deputy Senior Manager

◀ 이광훈(남양알로에)
경인영업팀 팀장/과장 ⇨ 팀장/차장
Gwanghoon Lee (Namyang Aloe) Gyeongin Sales Team Leader/Manager ⇨ Team Leader/Deputy Senior Manager

◀ 김바다(남양알로에)
전략기획팀 대리 ⇨ 과장
Bada Kim (Namyang Aloe) Strategy Planning Team Assistant Manager ⇨ Manager

◀ 임상득(유니젠)
경영지원실 관리팀 과장 ⇨ 차장
Sangdeuk Im (Unigen Korea) Management Support Office Management Team Manager ⇨ Deputy Senior Manager

◀ 박경민(유니젠)
재경인사팀 대리 ⇨ 과장
Gyeongmin Park (Unigen Korea) Finance and H&R Team Assistant Manager ⇨ Manager

◀ 성수경(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 생리활성검정팀 전임 ⇨ 선임연구원
Soogyeong Seong (Unigen Korea) Life Science Institute Bioasssay & Discovery Team Associate Researcher ⇨ Senior Researcher

◀ 이동영(유니젠)
신소재 사업부 구매영업팀 대리 ⇨ 과장
Dongyoung Lee (Unigen Korea) New Material Division Purchase Sales Team Assistant Manager ⇨ Manager

Promotions & Transfers

◀ 스탠 웨이스(오아시스)
마케팅 EVP ⇨ 해외 업무 EVP 겸 General Manager
Stan Weiss (Oasis) EVP of Marketing ⇨ EVP and General Manager of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 조엘 패트릭(오아시스)
마케팅 서비스 매니저 ⇨ 마케팅 서비스 이사
Joel Patrick (Oasis) Manager of Marketing Services ⇨ Director of Marketing Services

주임 ⇨ 대리 승진자 / Promotions from supervisor to assistant manager

㈜남양

• ERP PI팀 / 정봉수 •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팀 우길종, 이연석 • 연구실 / 품질혁신팀 유홍석 • 연구실 / 연구개발실 박용운

㈜남양알로에

• 경영지원팀 / 황혜정, 박홍엽, 안현진 • 교육팀 / 이윤진, 석미경, 정종희, 김소연, 송은주, 이현주 • 서울영업팀 / 이동영, 박영수, 백재열 • 경인영업팀 / 김 현, 강지철 • 중부영업팀 / 김효재, 심진우, 김유수 • 경영정보 2팀 / 유병용

㈜유니젠

• 경영지원실 재경인사팀 / 차경섭 • 생명과학연구소 천연물연구팀 / 오미선 전임연구원 • 신소재 사업부 구매영업팀 / 신혜경
• 신소재 사업부 품질관리팀 / 황보현정 대리

Namyang

• ERP PI Team / Bongsoo Chung
• Management Support Team / Management Planning Team Giljong Woo and Yeonseob Lee
• Research Center / Quality Innovation Team Hongseok Yoo
• Research Center / R&D Center Yongwoon Park

Namyang Aloe

• Management Support Team / Haejeong Hwang, Hongyeob Park, Hyunjin Ahn
• Education Team / Yunjin Lee, Migyeong Seok, Jonghee Jeong, Soyeon Kim, Eunju Song, Hyunju Lee
• Seoul Sales Team / Dongyoung Lee, Youngsoo Park, Jaeyeol Paek
• Gyeongin Sales Team / Hyun Kim, Jicheol Gang
• Jungbu Sales Team / Hyojae Kim, Jinwoo Sim, Yoosoo Kim
• Management Information Team 2 / Byongyong Yoo

Unigen Korea
- Management Support Office Finance & HR Team Gyeongseob Cha
-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Natural Product Research Team Senior Researcher Miseob Oh
- New Material Division Purchase Sales Team Assistant Manager Haegyeong Shin
- New Material Division Quality Control Team Assistant Manager Hyunjeong Hwangbo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주)남양 / Namyang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6/1/6 경영기획팀 김상수 대리 – 조모별세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grandmother of Sangsoo Kim (Assistant Manager, Business Planning Team) passed away on January 6, 2006Jaon

◆ 축하합니다.

1) 2006/1/11 에코넷기업본부 재무&자금팀 공승식 팀장 – 둘째 딸 출산

2) 2006/1/20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문길성 대리 – 첫 아들 출산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Seungsik Gong (Finance and Treasury Team Leader) on the birth of his second daughter on January 11, 2006

2) Congratulations to Gilsung Moon (ECONET Corporate Center HRMT) on the birth of his first son on January 20, 2006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축하합니다.

1) 2005/12/20 경영지원실 박찬영 사우 – 첫 딸 출산

2) 2005/12/21 경영지원실 박경민 과장 – 첫 딸 유채현양 돌잔치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Chanyoung Park (Management Support Office) on the birth of his first daughter on December 20, 2005

2) Gyeongmin Park (Manager, Management Support Office) threw a party in celebration of the first birthday of her first daughter, Chae-hyun Yoo, on December 21, 2005

하이난 알로콥 / Hainan Aloecorp

◆ 축하합니다.
- 2006/1/10 에코넷기업본부 송윤섭 대리 – 둘째 아들 출산

◆ Congratulations.
- Congratulations to Yunseob Song (ECONET Corporate Office) on the birth of his second son on January 10, 2006

유니베라 / Univera

◆ 축하합니다.
- 2005/12/25 유니베라 행정 지원 담당 바브 풀턴 – 손자 제이든 단테 풀턴 탄생

- 스카일러 풀턴 (바브 풀턴의 둘째 아들) 시애틀 씨헉스 미식 축구 구단에 입단, 캐피탈 고등학교 졸업생 씨헉스 구단의 새 내기 인디애나폴리스 콜트와 미네소타 바이킹을 잠시 거친 멀티 스포츠 스타 스카일러 풀턴 (캐피탈 고등학교 졸)이 이번에 는 시애틀 씨헉스에서 NFL에서의 세번째 둥지를 틀었다.
– 2006년 1월 9일 올림피안지 보도 –

◆ Congratulations.
- Barb Fulton has become a grandma - Jaden Dante Fulton (a baby boy) was born Christmas night.
- Skyler Fulton (the second son of Barb Fulton, Executive Admin. Assistant and Community Outreach, Univera) signed with the Hawks.

Capital Grad Now Newest Seahawk

After a short stint with the Indianapolis Colts and with the Minnesota Vikings, former Capital High School multi-sport star Skyler Fulton will take his third crack at the NFL -- this time with the Seahawks.

Source: The Olympian, Jan. 9, 2006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5/12/26 게리 대스트럽 인사 담당 상무 – 모친상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mother of Gary Dastrup (HR Director), Helen Dastrup, passed away on December 26.

Congratulations!

생일자 소식 02 ~ 03

Birthday in February & March

Happy Birthday

남양 알로에
Namyang Al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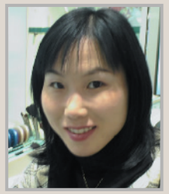
◆ (2/8) 최민경
Minkyoung Choi

◆ (2/11) 김경미
Kyungmi Kim

◆ (2/12) 황혜정
Hyejeong Hwang

◆ (2/14) 조복희
Bokhee Cho

◆ (2/14) 노준호
Junho Nho



◆ (2/15) 김정훈
Jeonghun Kim

◆ (2/26) 유병용
Byungyong Yu

◆ (2/28) 원혜연
Hyehyun Won

◆ (2/28) 이윤진
Yunjin Lee

◆ (2/28) 김바다
Bada Kim

◆ (3/1) 박홍엽
Hongyeop Park

◆ (3/6) 심규석
Gyuseok Sim

◆ (3/8) 조인영
Inyoung Cho

◆ (3/15) 이동영
Dongyoung Lee

◆ (3/17) 이용재
Yongjae Lee

◆ (3/28) 곽은정
Eunjung Kwak

◆ (3/29) 황현욱
Hyunuk Hwang

남양 / Namyang

◆ (2/1) 김명복
Myungbok Kim

◆ (2/6) 곽의영
Euiyoung Kwak

◆ (2/7) 이용기
Yongki Lee

◆ (2/11) 이충헌
Chungheon Lee

◆ (2/12) 고은희
Eunhee Go

◆ (2/28) 박병진
ByungJin Park

◆ (3/3) 정미영
Miyoung Jung

◆ (3/5) 이명자
Myungja Lee

◆ (3/6) 박정희
Junghee Park

◆ (3/8) 김계숙
Gyesuk Kim

◆ (3/11) 구희자
Heija Gu

◆ (3/12) 정옥화
Ockhwa Jung

◆ (3/13) 박용운
Youngun Park

◆ (3/15) 최규남
Kyunam Choi

◆ (3/16) 김연자
Yeonja Kim

◆ (3/16) 신범순
Beomsoon Sin

◆ (3/18) 김원복
Wonbok Kim

◆ (3/18) 박성완
Sungwan Park

◆ (3/26) 김영덕
Youngdeok Kim

◆ (3/28) 안계환
Gyehwan An

◆ (3/29) 이재윤
Jaeyun Lee

◆ (3/30) 안길순
Gilsun An

◆ (3/30) 한희순
Huisun Han

Happy Birthday

◆ (3/31) 박종숙
Jongsuk Park

유니젠
Unigen

◆ (2/2) 박찬영
Chanyoung Park

◆ (2/9) 손은정
Eunjung Son

◆ (2/16) 유재호
Jaeho Yoo

◆ (2/9) 김동선
Dongsun Kim

◆ (3/ 2) 박경민
Kyungmin Park

◆ (3/15) 신혜경
Hyekyung Shin

오아시스
Oasis

◆ (2/3)
키라 데븐포트
Kyra Daven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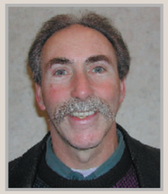
◆ (2/5)
제니퍼 드보어
Jennifer DeBoer

◆ (2/9)
사라 샤
Sarah Sh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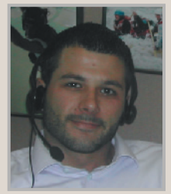
◆ (2/16)
욜란다 브란드
Yolanda Bland

◆ (2/25)
헤더 맥뮬렌
Heather McMullen

◆ (3/4)
사란 펠
Sarann Pell



◆ (3/5)
로브 칼닛스키
Rob Kalnitsky



◆ (3/7)
제이콥 윌리엄스
Jacob Williams

◆ (3/12)
조엘 패트릭
Joel Patrick

◆ (3/17)
제이슨 우드
Jason Wood

유니젠 미국
Unigen USA

◆ (2/9) 신상현
Sang Sin

◆ (3/13)
조나단 얼리와인
Johnathan Earlywine

◆ (3/18)
알렉산드레 네테로브
Alexandre Neterov

알로콥
Aloecorp

◆ (2/6)
비센테 레이에스
Vincente Reyes

◆ (2/11)
루루 뮤노즈
Lulu Munoz

◆ (2/15)
웨인 맥큔
Wayne McCune

◆ (2/20)
알리시아 페레즈
Alicia Perez

◆ (3/2)
후안 로모
Juan Romo

◆ (3/6)
아가피토 아귀레
Agapito Aguirre

◆ (3/7)
조 피날레스
Joe Pin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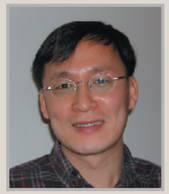
◆ (3/9)
레티시아 고메즈
Leticia Gomez

◆ (3/16)
라미로 갈레고스
Ramiro Gallegos

◆ (3/18)
아나 램시
Anna Ramsey

유니베라
Univera

◆ (2/16)
레베카 보샘
Rebecca Beauchamp



◆ (3/15) 이 요한
Yohan Lee

◆ (3/27)
토마스 홀리한
Thomas Hoolihan

유니젠 러시아
Unigen Russia

◆ (2/9)
시도렌토 브라디미르
페트로비치
Sidorenko Vladimir
Petrovitch

◆ (3/2)
드리트리에브 드미트
리 블라디미로비치
Dmitriev Dmitry
Vladimirovitch

◆ (3/8)
비니코브 발시리에
니코라에비치
Vinnikov Vasiliy
Nikolaevitch

◆ (3/11)
김 알렉산더
아나토리에비치
Kim Alexander
Anatolievitch

◆ (3/18) 허영문
Youngmoon Heo

◆ (3/19)
남 비타리에
발렌티노비치
Nam Vitaliy
Valentinovitch

◆ (3/23)
아니센초 나타리야
알렉산드로브나
Anischenko Natalya
Alexandrovna

새해를 맞이하면서 찍은 자유사진 응모전 당첨자 소개

에코네시안 여러분!
2006년도 벌써 2월로 들어섰습니다. 새해 초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새해 설계하신대로 훌륭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올해 예쁜 추억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1등 유니젠 러시아의 송년회

Russia-Unigen의 사무실 가족들은 2005년 저무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서로가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니젠 러시아 허영문 대리 / 10만원 상품권

▶ 맨 앞줄 왼쪽부터 Porotopopova Olga Anatolrievna, Poprachev Oleg Nikorayevich, Markova Ryubov Ibanovna, Kim Alexandr Anatoliyevich
▶ 뒷줄 왼쪽부터 Semiraseko Svetrana Anatolyevna, Sidorenko Bradmir Petrovich, Heo Young Moon, Shimendyuk Valentin Evgenivich, Litvinove Oleg Alecksandrovich

First Prize Winner Unigen Russia's Holiday Party

Drawing a close to the year 2005, the staff members of Russia-Unigen office had a gathering to congratulate each other on a job well done. Heo Young Moon, Assistant Manager, Russia-Unigen / A 100,000-won gift certificate

▶ Front, from left: Porotopopova Olga Anatolrievna, Poprachev Oleg Nikorayevich, Markova Ryubov Ibanovna, Kim Alexandr Anatoliyevich
▶ Rear, from left: Semiraseko Svetrana Anatolyevna, Sidorenko Bradmir Petrovich, Heo Young Moon, Shimendyuk Valentin Evgenivich, Litvinove Oleg Alecksandrovich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for pictures taken while welcoming the New Year

Fellow ECONETIANs!
It's already February 2006. How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going? We wish you a wonderful year that fulfills your expectations se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How about keeping wonderful memories of this year in photos as well?

2등 행복한 러시아나

지난 10월 올림픽 반도에서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내가 낚아 올린 18파운드 (약 8kg)짜리 실버 코호 연어입니다. 맛이 어땠냐고요? 션이 훈제 연어로 만들어 맛을 보았답니다. (저의 보스인 치와 유안도 함께 들었죠.)
션 – "맛이 끝내줬습니다!" 샤샤 네스테로브, 미국유니젠 제놈 담당 연구원 / 5만원 상품권

Second Prize Winner Happy Russiana

This is 18-lb silver (Coho) salmon that I caught last October on Olympic Peninsula (under the pouring rain). As for its taste: Sean had a chance to try it in a smoked form (so as both of my bosses, Qi and Yuan).
Sasha Nesterov - Unigen-Genomic Scientist / A 50,000-won gift certificate
Sean - "It was really tasty!"

Photo Contest

3등 30주년 기념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으로 드라마 "올인" 촬영장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남양알로에도 30주년이지요^^*

㈜남양알로에 교육팀 조인영 대리 / 3만원 상품권

Third Prize Winner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my parents, we welcomed the New Year where the popular Korean drama All In was filmed. Namyang Aloe also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In-young Cho, Assistant Manager, Training Team, Namyang Aloe / A 30,000-won gift certificate

아차상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베라스파 치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We have Veraspa toothpaste for the following participants as a token of appreciation.

작년 말 데렉 사장님이 남양알로에에 기증한 크리스마스 예수님 장식품에서 남양알로에 고객지원팀이 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남양알로에 고객지원팀 박정아 과장

The Namyang Aloe Customer Support Team, having their picture taken with Santa Claus, displays the Jesus Christmas ornament Derek Hall presented to Namyang Aloe last year.

Jeongah Park, Manager, Customer Support Team, Namyang Aloe

알로콥 – 꽃을 든 남자

일명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새해 미소처럼 항상 행복하세요!

알로콥 김수겸(조셉김) 이사

Aloecorp - A man with flowers

What a pretty man! We hope your New Year's smile never fades!

Joseph Kim, Director of Operations, Aloecorp

에코넷의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코넷 웨스트의 법무, 전략, 행정부는 크리스마스 회식 전에 에코넷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툼 홀리한 – 유니베라, EVP & General Counsel

By the ECONET Christmas tree

After a long year of hard work and many accomplishments, the Law, Strategy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CONET West gather for a holiday picture by the ECONET Christmas tree before sharing a department Christmas lunch together.

Law Strategy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 by Tom Hoolihan - Univera, EVP & General Counsel

잭슨의 요새

잭슨이 제 아들 집의 오락실에 있는 이 테이블을 징발하여 자신의 놀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새 같죠? 그래서 사진 제목은 "잭 – 잭의 요새"입니다. 2005년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폴 스미스 – 오아시스 그래픽 디자이너

Jackson's fort

Jackson commandeered this table in the recreation room at my son's house and used it as a play area, almost like a little fort. I call this image "Jak-Jak's Fort". Picture taken two days before Christmas, 2005. Paul Smith - Oasis- Graphic Designer

장난스러운 신부 아버지

이 사진은 2005년 12월 17일 몬타나주의 Upper Canyon Outfitters 에서 있었던 제 결혼식에 참석한 우리 아버지(짐 드보어)의 모습입니다. 기온이 영하 20 도였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빨간 코 장식은 이제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제 언니의 결혼식에서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번 저의 결혼식에서도 빨간 코 장식을 하시고는 저와 제 남편과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난이 심하시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원래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 직장 동료가 금주의 사진으로 응모했던 사진입니다.

제니퍼 드보어 – 오아시스 고객서비스담당

Jokester Dad at his wedding

This is a picture of my dad (Jim DeBoer) in MT at Upper Canyon Outfitters, where I had my wedding on Dec 17, 2005. It was -20. The red nose he is wearing is kinda a family tradition now. He broke it out at my sisters wedding and both my husband and I posed with him wearing red noses at ours. My dad is a notorious prankster. It's just him and I love him! This picture was submitted by one of his work buddies for picture of the week through their group.

Jennifer DeBoer - Oasi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산타는 우리에게 화도 안 냈어요!

산타클로스와 관계된 천진한 어린아이의 얘기입니다.

카렌후톤 – 오아시스 매장, 오아시스

Santa is not mad at us!

This is a cute story of an innocent boy about Santa Claus. Karen Hutton - Oasis, Oasis Store

◈ 2006년 4월호에는 창립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회사와 관계된 기억에 남은 추억에 사진 자유 응모전 입니다. 30주년 특집으로 푸짐한 상품(안내 페이지)이 준비되었으니 이번에도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For the April 2006 photo contest, please send in any pictures that stir up memories of the company from its early years until today. In celebration of the company's 30th anniversary, we will award especially generous prizes (listed on the information page). We appreciate your active participation.*

2월호 퀴즈 & 2005 12월호 당첨자 발표

퀴즈정답 – (30), (초심을 잃지 않고 창업철학의 구현에 헌신), (바로 여러분, 철학과 비전을 함께 하는 에코네시안들)

▶ 12월호 퀴즈당첨자 (베라스파 2호 세트) : ㈜남양알로에 / 조성훈, ㈜남양알로에 / 곽은정, ㈜남양 / 신부희,
에스메랄다 이니구에즈 – HR / 알로콥, 텍사스 라이포드 리차드 코난트 –매니저, 유니베라 / 오아시스

▶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60page에 있습니다.

▶ 2006년 4월호에는 창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회사와 관계된 기억에 남는 추억에 대한 사진 자유 응모전입니다.
- 1등 : 200,000원 상품권 (1명), 2등: 100,000원 상품권 (1명), 3등: 50,000원 상품권(1명)

2월호 ECONET WAY 퀴즈

1) 서번트 리더쉽의 월별 테마 중 2~4월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2) 올해로 남양알로에는 창립( )주년을 맞이하였다.

- *남양931을 퀴즈 상품으로 드리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베스트 원고상에 응모하세요!

기존 에코넷웨이에 원고를 써주시면 소정에 원고료를 드렸으나 앞으로는 원고를 열심히 잘 써주신 분 두 분만을 선정하여 각 각 100,000원($100)에 상당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엽서

February Quiz and Winners of the December Quiz

Answers to the December 2005 quiz :

(30th), (dedicated itself to realizing its founding philosophy without losing its initial resolve.) (you, ECONETIANs)

▶ Winners of the December Quiz (Winners of Veraspa Set No. 2)

- Seonghun Cho / Namyang Aloe, Eunjeong Gwak / Namyang Aloe, Buhee Shin / Namyang
  Esmeralda Yniguez / HR - Aloecorp, Lyford TX Richard Conant / Manager, Univera, Inc./ Oasis LifeSciences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kaoh@univera.com) or by postcard

▶ The winners of December photo contest are announced on page 60.

▶ For the April 2006 photo contest, please send in any pictures that stir up memories of the company from its early years until today.

- First prize : A $200 gift certificate (1 winners)
- Second prize : A $100 gift certificate (1 winners)
- Third prize : A $50 certificate (1 winners)

Quiz for the February issue of ECONET Way

1) A different servant leadership theme is set for each month. What are the themes for February through April?

2) This year, Namyang Aloe celebrates the ( )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Winners will receive Namyang 931 as their prize.

Enter the best article contest!

Up until now, we have paid a modest remuneration to those who contribute articles to ECONET Way. In the future, however, the two best articles will be selected and each writer will be presented with gifts worth $100.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ECONET WAY

ECONET 에코넷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Postcard
ECONET WAY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고객, 직원, 가족)

성명

소속

주소

전화

□□□–□□□

받는사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동 302–4 에코넷센터 3층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에코넷웨이" 편집담당자 앞

1 3 3 – 1 2 0

ECONET WAY
Postcard

sender (customer, employee, family)

Name

Division

Address

Phone number

□□□–□□□

Please send to

The Editor of ECONET WA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3th floor,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1 3 3 – 1 2 0

ECONET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 함께 만드는 ECONET WAY •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에코넷웨이' 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에코넷웨이' 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 정답

• Let's join the ECONET WAY •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 Answer

ECONET WAY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ECONET

㈜남양 / Namyang Company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Inc.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namyangaloe.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유니베라 / Univera,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오아시스 / Oasis Lifescienc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oasislifesciences.com

미국 유니젠 / Unigen Phmaceuticl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콥(생산) / Aloecorp Inc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콥(영업) / Aloecorp Inc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중국 하이난 알로콥 / Hainan Aloecorp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3rd Floor, Aleutuskaya 14str.
Bladivostok, Primory, Russia
Tel : 7-4232-30-10-66, Fax : 7-4232-30-10-64

식물에서 찾은 생명의 희망을
유니젠이 전해 드립니다

길가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유니젠에선 소중한 생명의 희망으로 바뀝니다.

유니젠은 전세계에 분포한 여러 식물로부터
인간에게 유용한 성분을 탐색하여 기능성 신소재 및
제품으로 개발하는 생명과학 회사입니다.

unigen
www.unigen.net